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ve Language
Textbooks u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양 은 수

2009년 8월

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ve Language
Textbooks u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양 은 수

2009년 8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ve Language
Textbooks u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지도교수 이 주 섭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양 은 수

2009년 5월

양은수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윤 치 부 인

심사위원 이 주 섭 인

심사위원 전 제 응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6월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7
II. 이론적 배경	9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9
2. 단위 구성 방식	13
3. 기초 문식성의 지도	15
III.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21
1. 교과서의 편찬·발행 및 공급 체제	21
2. 교과서의 구성	24
3. 단원의 구성 체제	28
4.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입문기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53
IV. 결론 및 제언	68
참고 문헌	71

그림 목 차

[그림 III-1] 한국 교과서의 단원 도입의 예	35
[그림 III-2] 미국 『 <i>LITERACY PLACE</i> 』의 단원 도입의 예	36
[그림 III-3] 한국 교과서의 이해 학습의 예	40
[그림 III-4] 한국 교과서의 적용 학습의 예	42
[그림 III-5] 미국 『 <i>LITERACY PLACE</i> 』에 수록된 텍스트의 예	43
[그림 III-6] 미국 『 <i>LITERACY PLACE</i> 』의 ‘멘토’학습의 예	44
[그림 III-7] 한국 교과서의 정리 학습의 예	48
[그림 III-8] 미국 『 <i>LITERACY PLACE</i> 』의 ‘프로젝트’ 학습의 예	49
[그림 III-9] 한국 교과서의 ‘글자의 짜임 알기’ 학습 내용 예	59
[그림 III-10] 미국 『 <i>LITERACY PLACE</i> 』 워크북에 드러난 발음 학습의 예 ..	66
[그림 III-11] 미국 『 <i>LITERACY PLACE</i> 』 워크북에 드러난 다양한 학습 방법의 예	67

국문초록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연구

양 은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이 주 섭

본 연구는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한국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점진적인 개편과정에 있으므로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미국의 교과서는 Scholastic 출판사의 『LITERACY PLACE』 교과서만을 본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II장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먼저 1절에서 교과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3절에서는 기초 문식성 지도와 관련하여 문식성의 기초 기능 및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은 국정제를 취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무상으로 급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인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공급에서는 대여제를 취하고 있다. 2절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교과서를 분책하고 있으며, 미국은 언어 기능 및 영역이 통합된 주교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교과서인 워크북을 함께 발행하고 있었다. 3절에서는 단원 구

성 체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단원 구성 체제에서는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전개 방식, 단원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여 목표 중심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해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단원 전개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으며, 학습을 돕는 여러 학습 보조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미국 교과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텍스트들이 교과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멘토 학습 등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4절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두 나라 모두 균형적 지도법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 교과서는 기초 문식성을 위한 학습 공간이 한 달 정도의 분량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 교과서는 보조 교과서인 워크북을 통해 1년에 걸쳐 기초 문식성 교육이 점진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에 대한 이상의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과서 편찬·발행 제도와 관련하여 검인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국어 교과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존의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텍스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충분한 학습 기회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은 이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어를 다루는 자국어 교과서의 우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의 질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미국 교과서, 단원구성체제, 기초 문식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1, 2학년에 새로운 교과서가 보급되면서 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열린 교과서관이 확대 되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착화 되면서 교과서를 흔히 수업을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말하곤 하지만, 교과서는 학교 교수·학습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사실, 학습 목표와 교실 상황에 맞게 교과서를 대체하는 자료를 직접 구상하거나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교육과정 자체를 재해석하여 단원의 학습 목표부터 스스로 설정하도록 하는 보다 능동적인 교사의 자세를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재해석과 비판적 이해가 뒤따를 때 각 교실 상황에 적합한 학습이 구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를 대체할 학습 자료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간과하기 힘들다. 또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확신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수업 중 교과서에 대한 의존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이며, 교실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교과서이다. 이러한 교과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교수·학습의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과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비단 한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국정제에 따라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교과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의 초등학교와는 제도적으로 다르지만 외국에서도 교과서의 위상과 기능을 인식하고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자국어 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국 국어 교과서에 반추 해 보는 작업은 한국 국어 교과서를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과정임은 분명하다.

자국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여러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국가로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많다. 한국의 국정제와 달리 각 주별로 다양한 교과서 발행제도를 선택하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교재 선택에도 교사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교과서가 출판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과서의 발행으로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미국의 자국어 교과서와 비교하는 것은 한국 국어 교육에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역사·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의 교과서와 한국의 교과서를 비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서로 이질적인 언어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국어 교과서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방식 및 반영 정도,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배제하였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가 집필되어 발행되기 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교과서 제도 및 정책, 단원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 체제, 자국어 교과서의 기본을 이루는 기초 문식성 교육 등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교과서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부터 교과서의 구현까지 교과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자국어 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어 교과서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대상의 설정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국정제에 의해 한 가지로 통일되고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종류가 다양하다. 미국 교과서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여러 출판사의 자국어 교과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국어 교과서 중 여러 주에서 채택률이 높은 Scholastic 출판사의 『LITERACY PLACE』 교과서만을 본 연구의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의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점진적인 개편과정에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새롭게 구성되어 편찬된 1, 2학년 1학기 교과서 중, 입문기 기초 문식성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설정 한 Scholastic 출판사의 『LITERACY PLACE』 1학년 교과서는 이후 ‘미국 『LITERACY PLACE』’로,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는 ‘한국 교과서’로 통칭한다.

나. 교과서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의 설정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의 타당도와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학문적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공통된 요소 및 특징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비교 연구를 위해 교과서 비교 연구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비교 분석 준거 설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았으며, 선행 연구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들은 다음과 같다.

<표 I -1> 선행 연구 문헌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 비교

선행 연구 문헌	비교 분석의 준거
최미혜(2007), 미국 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비교연구:4학년 읽기 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의 구성 요소, 읽기 전략의 사용, 삽화의 활용
신은주(2007),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문학 단원 비교 연구: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과서 외적 체제, 내적 체제, 문학 단원 전개 양상
이용숙(2005),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 구성체제 비교 분석	총체적 언어 학습, 언어 기능 학습, 주제 중심 학습, 의미 구성 활동의 방법 및 절차, 수준별 학습을 위한 다양하고 충분한 자료의 제시
김수현(2003),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체제의 비교 연구: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교과서를 이용한 학습 실태와 문제점
정인석(2001),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	학생활동중심, 과정 중심, 학습 동기 유발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비교 분석의 준거들을 살펴보면, 최미혜(2007)는 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 초등학교 4학년 읽기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함으로써 이상적인 읽기 교과서의 구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단원 구성 체제 비교에서는 우리나라 읽기 교과서와 미국의 세 개의 출판사에서 발간한 3종의 교과서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비교의 층위를 넓혔다. 더불어 교과서에 제시된 읽기 전략까지 비교 준거로 설정하여 읽기 전략의 종류에 대해 교과서별로 소개하고 있으나, 읽기 전략의 적절성 및 효과적인 제시 방법에 대한 제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은주(2007)는 문학 단원 비교 연구를 위해 미국의 4개 출판사의 교과서와 비교 연구 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과서 외적 체제, 내적 체제, 문학 단원 전개 양상을 비교 준거로 하여 교과서 편찬의 큰 틀에서부터 단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으며, 국어 교육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 양상도 함께 비교하여 교과서 개선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외적 체제와 내적 체제를 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인 비교 준거 없이 각 출판사의 상이한 체제를 그대로 분석·나열함으로써 논문을 읽은 이가 다시 종합적으로 구조화 시켜야 하는 난점이 있다.

김수현(2003)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가 교과서 편찬 방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으며,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하는 학습 실태와 문제점을 학생의 입장에서 질적 연구하였다. 문헌 연구뿐만 아니라 학습 참여자인 학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심층적인 연구를 이끌었으나, 연구의 필요성에서 밝혔던 교과서의 편찬 방향의 반영 정도에 대한 내용보다는 교과서의 기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서두의 연구 계획과 상충되고 있다.

정인석(2001)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영재용 국어 교과서 시안을 국어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고려하여, 학생활동중심, 과정 중심, 학습 동기 유발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단원 구성 체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비교 분석의 준거로 설정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 의미 있는 비교를 하였으며, 세 가지의 비교 분석 준거별로 단원 구성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러나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단원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비교 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단원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 내적 체제와 외적 체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내적 체제는 교과서 체계(system)의 문제로 교수·학습 내용을 조직, 전개하는 구성방식에 대한 것이고, 외적 체제는 교과서의 판형이나 색도, 글자 크기와 모양, 여백처리, 지질, 삽화의 배치 등 교과서의 외형 및 편집 디자인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외적 체제는 심리학이나 출판 디자인 등의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단원의 구성 방식 및 단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내적 체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원은 체계적인 국어과 교수·학습의 가장 큰 단위로, 단위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수·학습은 단위 학습을 통해 완성된다.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제는 교과서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미국 교과서의 단위 구성체제와 비교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으며 교과서가 개정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원의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개정된 한국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원을 조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요인¹⁾인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이해와 더불어 두 나라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국어 교과서의 구성 형태도 단위 구성 체제의 비교 전에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 구성 체제의 비교에서는 기본적인 단위 구성 및 전개 방식과 함께, 교과서의 기능 및 국어 교과서의 요건에 대한 반영정도를 단위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1, 2학년 한 학기 교과서만이 편찬된 현 시점에서 비교 가능한 여러 준거 중, 언어 학습의 토대가 되나 비교 논의가

1) 교과서의 단위 구성 체제는 교과서 개발 시기의 학문적 경향,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제도, 교사의 교과서 활용에 대한 관점 등의 요인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단위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인 부분만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초 문식성 교육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고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 교과서의 구성, 단원 구성 체제, 기초 문식성 교육을 비교 분석의 준거로 삼아 한국과 미국의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국어과 교과서 개선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앞서 살펴 본 연구 대상 및 비교 분석의 준거를 바탕으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연구 배경에 대한 고찰로, 먼저 1절에서 교과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여러 방식과 각 방식들의 장·단점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기초 문식성 지도와 관련하여 문식성의 기초 기능 및 한글의 초기 문자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이론적 탐구를 하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한국과 미국 교과서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진다. 먼저 1절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를 비교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비교, 3절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단원 구성 체제에서는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전개 방식, 단원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다. 4절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을 미국 교과서와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라.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비교 교육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이다. 비교 교육학은 비교 방법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 제도 및 교육 활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사회 과학적으로 해석

하여 교육의 본질을 해명하려는 학문이다.

비교 연구는 비교하려는 대상이 매우 유사한 단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비교’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볼 때 사물 또는 현상의 관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비교 대상이 유사성을 띠지 않을 때 비교의 가치가 있다. 비교의 대상이 전부 일치하거나 전혀 다르다면 언급할 가치가 없다.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교재의 특성상 일정한 제도를 바탕으로 편찬되며, 단원을 하나의 구성 단위로 하여 교과서가 구성된다. 또한 기초 문식성 교육은 언어를 교육함에 있어서 초등학교 입문기인 1학년 교육 내용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세부 제도 및 구성 요소, 조직 및 전개 방식 등에서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가치가 충분하다.

비교 연구는 순수한 자료의 수집 단계인 기술, 사회 과학적 방법에 의한 교육적 사실의 분석 단계인 설명, 수집된 자료를 예비적으로 대조하여 자료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결정하는 단계인 병치, 비교의 목적으로 각 국가에서 수집된 자료와 사실을 최종적으로 융합하는 단계인 비교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단계에서 균형 비교 방법을 적용한다. 균형 비교는 특정 연구 주제나 연구의 부분을 나라별로 차례로 다루는 방식으로, 각 국가에서 나온 자료를 맞물리게 하여 연구 중에 있는 국가들 사이를 왔다 갔다 왕복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정영선, 2005, pp. 4-5).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를 여러 주에서 채택률이 높은 Scholastic 출판사의 『LITERACY PLACE』의 1학년 교과서만으로 한정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주 비교 대상 교과서로 설정한다.

두 번째로, 기초 문식성²⁾의 개념을 말소리와 글자를 연결하여 음가를 확인하

2) 문식성은 발달적 측면에서 기초기능과 고등기능의 두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기초 기능은, 읽기에서는 글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 낼 수 있는 글자 읽기 혹은 글깨치기 수준의 기능으로, 그리고 쓰기에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자기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글자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고등 기능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독자

여 해독하고 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기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글자로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의 의미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 때, ‘기초적인 능력’이란 한글 해독과 글씨 쓰기를 바탕으로 한 기초적인 의미 구성까지를 말한다.

나름대로 구성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수준, 그리고 생각을 떠오르는 그대로 글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엮는 수준을 말한다(노명완, 이차숙, 2006, pp. 54-55).

Ⅱ. 이론적 배경

1. 교과서의 개념과 기능

가. 교과서의 개념

교과서는 학교 교과 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교재 중 하나로, 교과서를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교재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재란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적·표상적 실체를 가리킨다. 여기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표상적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며, 물리적이라 함은 교사와 학습자가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이성영, 1995).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재 중 하나인 교과서의 개념은, 각 시대의 교육 사조나 교육관의 변천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교과서의 개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대통령령 제20740호, 2차 개정 2008. 2. 29).
- 교과서란 각 교과가 지니는 지식과 경험의 체계를 쉽게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편집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교재이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2, p. 90).
- 교과서는 교육 공동체의 합의 아래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교재이다(노명완, 2002, p. 120).
-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이라는 제도의 외연을 보여주는 명료하고 고정된 실체라 할 수 있다(김창원, 2003, p. 45).
- 교과서는 교재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로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선정·조직한 제재들의 유기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최현섭 외, 2008, p. 104).
- 교과서는 추상적인 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을 교실 수업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자료이다(정혜승, 2004, p. 1).

이상에서 정의된 교과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구체화시킨 자료로서, 학교의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위한 교재라고 볼 수 있다.

나. 교과서의 기능

1) 교과서의 일반적 기능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교과서는 실제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학습 상황의 영향만을 받지 않는다. 교과서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짜여 지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교육공동체의 이상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수립되기까지 사회적·정치적·문화적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기능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교실 수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사회, 교육과정, 교수·학습 상황, 교사, 학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노명완 외(2004, pp. 16-18)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과서는 사회와 관련하여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고, 윤리적인 계도를 하며, 교육의 질 관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과서는 특정 사회에서 사용되는 교수·학습 자료로서, 교과서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철학적 기반부터 질서 체계까지의 전반적인 양상을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개발된 교과서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철학과 내용을 재해석하고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수준이 대단히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대단히 추상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은 달라지게 된다.

셋째, 교과서는 교수·학습 상황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실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과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대화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나 내용을 구체적 모습으로 실현시켜 주는 것이 교과서이기에, 교사는 가르칠 내용을 교과

서에서 확인하게 되고, 학생도 학습할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교실 구성원들 사이의 중간에서 학습 활동의 매개체가 되며, 교실 구성원 사이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 할 때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된다.

넷째, 교사와 관련하여 교과서는, 교수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를 안내하며, 언어 사용의 모델을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사가 교과서를 보고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면, 그것은 교과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다섯째, 교과서는 학생에게 학습 목표를 안내하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 기능을 정착시키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내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여 학습 참여와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

좋은 국어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본 교과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과가 가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정혜승(2006, pp. 387-391)은 교과서의 일반적 기능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사용 경험을 하도록 실제적인 자료와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 실제적이란 교과서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것이 교실 밖에서도 여전히 유효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을 위한 자료와 활동이 아니라 교실 밖 현실에서 ‘통하는’ 자료와 활동이어야 한다. 교과서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언어 기능을 분절적으로 지도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이는 일상의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일상의 말하기에서는 내용 준비만 한다든가, 내용 조직만 하는 경우는 없다. 더욱이 듣기 없이 말하기만 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의 언어생활은 늘 전면적이고 총체적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 역시 언어생활의 실제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의 문화적 소양을 고양하여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것을 향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국어 교

과서의 글은 국어사용 기능과 관련된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감상하고 반응할 독자적 가치가 있는 텍스트로서, 학습자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선정,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감상·반응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국어 교과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수업 가능성을 담보한 자료를 교실의 개별성과 수업 융통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만나 더불어 의미를 공유하고 생성해내는 좋은 수업에서 소통과 의미 구성의 단서를 제공하고 방식을 안내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어 교과서는 심층적 교육과정을 실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기반 하여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기반 한다고 할 때 교육과정의 의미를 표층적 수준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서로 ‘언표화 된’ 진술 이면에 기저 하는 심층적 수준의 교육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심층적 교육과정은 표층적 교육과정에 기저 하는 철학적 인식론적 토대이다. 표층적 교육과정이 ‘무엇을’, ‘어떻게’와 같은 공학적 물음에 대한 명시적 답이라고 한다면, 심층적 교육과정은 좀 더 근원적으로 ‘왜’라는 철학적, 인식론적 물음에 대한 가치 지향적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국어 교과서는 언어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언어는 미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 기호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갖는다. 언어의 성격에 대한 전면적 이해는 국어사용 능력은 물론 언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건강한 언어관을 갖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언어의 나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언어의 힘과 한계에 대한 인식, 언어와 사고의 상호 구축적 관계에 대한 성찰,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한 분석, 인간 삶의 조건과 언어변화에 대한 이해, 기호로서 언어의 의미 작용에 대한 탐구 등을 균형 있게 다룰 때 국어 교과서는 언어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언어를 부려 쓸 수 있는 학습자를 기를 수 있다.

여섯째, 국어 교과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시각이 다양한 텍스트로 펼쳐지는 교과서가 좋은 국어교과서이다.

일곱째, 국어 교과서는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교과서가 학습자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인지적, 정의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인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학습의 필요성과 의미를 인식시키고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여 학습 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구성 요소 제시,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 적절한 난이도의 텍스트와 학습 활동 제시, 인터넷과 같은 매체 활용을 통한 학습 공간의 확대 등이 있다. 정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텍스트 선정, 학습자가 공감 할 수 있는 활동 주제와 화제 채택, 학습자 중심의 진술 방식, 삽화와 같은 편집상의 기술 등이 있다.

2. 단원 구성 방식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교과서 체제는 교과서 체계, 즉 교과서를 구성하는 요소와 각 요소의 기능 및 배치에 대한 것으로, 단원 구성 방식과 그에 따른 단원 전개 방식을 말한다.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실행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학습 효과성과 학습자의 흥미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또 단원 구성 방식은 국어과 교육의 중핵을 바라보는 관점을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국어과 교육의 중핵적 지도 내용을 지식으로 볼 것인지, 기능으로 볼 것인지, 가치와 태도로 볼 것인지 하는 관점에 따라 선호하는 단원 구성 방식이 달라진다.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에는 ① 제재 중심, ② 목표 중심, ③ 문종(文種) 중심, ④ 주제 중심의 구성 방식이 있다. 첫째, 제재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중심 제재를 하나 제시하고 제재 내용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제재 내용에 대한 학습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독해 중심의 수업을 조장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국어사용 경험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사용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에서는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단원에서 설정한 학습 목표에 기여하도록 구성된다. 단원의 도입부, 제재와 학습 활동,

평가와 정리 등 단원 구성요소가 학습 목표와 관련된다. 이 때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므로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 방식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국어사용 기능 영역의 여러 교육 내용들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국어사용 경험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목표에 종속됨으로써 단조로운 활동이 반복되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각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제시된 목표가 언어 기능을 세분화한 것으로 언어 경험의 실제성과 총체성을 제공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다.

셋째, 문종 중심 구성방식은 한 단원을 묶는 기제와 단원과 단원을 구분하는 기제를 글의 종류인 문종에 따르는 방식이다. 단원은 각 문종에 속하는 제재로 구성되며, 학습 활동은 글 내용에 대한 문제와 문종과 관련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된다. 문종 중심 구성 방식은 문종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독해 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중심 구성 방식과 마찬가지로 문종의 강조는 교육과정과 무관한 학습을 유도하되, 독해 위주의 수업을 조장하여 국어 사용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넷째, 주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말 그대로 ‘주제’가 단원의 구심점을 이루는 방식이다. 이 때 주제는 삶 속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며 국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언어 경험의 실제성과 총체성을 제공하는데 용이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그러나 주제의 선정과 배열에 있어서 위계성의 확보 문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주제 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단원의 중심축인 주제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 상충되어 수업이 주제 중심으로 흐를 경우 국어과 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가능성도 있다. (노명완 외, 2004, pp. 49-51)

단원을 묶고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언어 자료를 어떻게 선정·배열하여 교수·학습에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위에서 살펴 본 네 가지의 단원 구성 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방식 별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였을 때 고려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

3. 기초 문식성의 지도

가. 문식성의 기초 기능

문자 매체를 매개로 하는 읽기 및 쓰기 즉 문식성은 발달적 측면에서 기초 기능(minimal level of literacy skills)과 고등 기능(high level of literacy skills)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초 기능은, 읽기에서는 글에 쓰여진 글자를 읽어 낼 수 있는 글자 읽기 혹은 글 깨치기 수준의 기능으로, 그리고 쓰기에서는 머리에 떠오르는 자기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글자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기능은 일상사에 관하여 친근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듣기 기능 그리고 아이디어의 생성이나 조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기억의 단순 인출 기능 등을 말한다. 이런 기능은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복잡한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는 연설 말하기나 연설 듣기와는 다르다. 반면에 문식성의 발달 측면에서 볼 때 고등 기능은 글을 읽고 그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독자 나름대로 구성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수준, 그리고 생각을 떠오르는 그대로 글자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글로 엮는 수준을 말한다.

기초 기능을 읽기와 쓰기에 관련되는 요소인 필자, 독자, 상황, 텍스트 요인에 비추어 볼 때, 네 가지 요인 중 텍스트 자체에만 집착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읽기의 대상이며 메시지 전달의 매체인 글을 읽어 낱말의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독해하는 내용 이해 위주의 읽기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글자로 옮겨 놓는 단순한 쓰기를 말한다. 이 수준에서 독자나 필자는 상황적인 필요나 요구, 그리고 독자(또는 필자) 자신과 필자(또는 독자)의 사전 지식, 기능, 목적, 태도, 필요, 요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메시지의 내용에만 관심을 갖는다.

기초 문식성 기능의 획득 및 신장은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 완성되며, 기초 기능의 학습에서는 글자를 바르게 그리고 빨리 읽고 쓰는 일이 중요하다.(노명완, 이차숙, 2006, pp. 154-156)

나.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

초기 문자 지도의 주요한 목표는 기초 문식성에 도달하는데 있다. 기초 문식성에 도달하기 위한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은 크게 발음 중심 지도 방법, 의미 중심 지도 방법, 절충식 지도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초기 문자 지도 방법은 발음 중심 지도 방법과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의 양 극단의 모습에서 점차 양자를 병행하는 절충적 지도 방법으로서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각 지도 방법의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오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최미숙 외, 2009;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편, 2006; 노명완, 이차숙, 2006) 된 초기 문자 지도의 세 가지 방법의 의미와 특징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발음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은 읽기 과정 모형 중 상향식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도 방법은 문자 부호를 처음에는 상 기억 속에 시각적 형태로 저장하고, 다음에 음운 기호로 번역하는 문자 기호의 음성 기호화를 강조한다. 일단, 음성 기호로 번역이 되면, 그 후에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음성 언어 처리 능력이 동원되어 의미 파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활자화된 문자를 음성 언어로 해독하는 과정(시각적 언어 기호→청각적 언어 기호)에서 철자(문자)와 음운(소리)의 대응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영어 지도에서의 발음 중심 방법과 비슷하고,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에 학생들에게 낯익은 단어를 문자-소리 대응 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언어학적 접근 방법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발음 중심 지도 방법으로는 자모식과 음절식을 들 수 있다.

가) 자모식

자모식은 자모법 또는 기억니은식 지도법이라고도 한다. 실제 지도에서는 기

본 음절표를 활용하여 자모인 ‘ㄱ, ㄴ, ㄷ, ㄹ……ㅎ’과 ‘ㅏ, ㅑ, ㅓ, ㅕ……ㅣ’등을 가르치고, ‘ㄱ’에 ‘ㅏ’를 더하면 ‘가’가 되고, ‘가’에 받침 ‘ㄱ’을 더하면 ‘각’이 된다는 식으로 지도한다.

나) 음절식

음절식은 음절법 또는 가갸식 지도법이라고 한다. 한글은 자소와 음소가 1:1로 비교적 정확하게 대응을 이루는 표음문자이다. 그러나 문자 표기에 있어 영어처럼 선조적으로 벌여쓰는 것이 아니라 초성과 중성 혹은 초성과 중성, 종성이 모여 한 음절을 이루는 모아쓰기를 하고 있다. 이는 실제 발음되는 음절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절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에는 ‘체계적 자모 중심법’과 ‘동음절 연상법’이 해당된다.

첫째, ‘체계적 자모 중심’은 음절의 체계적인 조직표인 기본 음절표를 활용하여 먼저 ‘가갸겨겨……’식의 개음절을 지도하고, 다시 여기에 받침을 덧붙여 폐음절 ‘각각격격……’등의 음절을 지도한 다음에 문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하나하나의 음절을 가르치되 그 음절의 구조와 결합 원리 그리고 각 자소의 음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적으로 가르친다. 이 방법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문자 체계를 지도할 수 있으나, 기본 음절표의 음절 140개중 사용하지 않은 음절이 1/3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음운 변화에 따른 발음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동음절 연상법’은 단어 분석을 음절 수준에서 머물고, 하나하나의 음절을 단위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거나 분석하도록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우리’라는 단어를 ‘우유’의 ‘우’와 ‘머리’의 ‘리’로 분석하고, ‘우’자와 ‘리’자를 결합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한글의 구조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자음과 모음의 글자 요소와 그 글자 요소의 음가를 대응시켜 발음의 규칙성을 지도할 수 있다. · 일단 자소·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인 한글 지도에 알맞다. · 철자에 유의하게 되므로 맞춤법과 정서법 학습에 유용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단위까지 다루므로 아동의 학습 흥미 유발, 지속이 곤란하다. · 의미보다는 문자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 독해 지도와 연계되지 않는다. · 지나치게 자소·음소 대응을 강조하게 되면 받침이 있는 음절, 음운 변동이 있는 낱말들을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

2) 의미 중심 지도 방법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은 하향식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지도 방법에서는 정확한 발음보다는 의미의 파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도할 단어나 문장을 선택할 때에 문자의 구조나 형태상의 단순성, 발음의 편이성 보다는 그 뜻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낯익은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이에 제한된 단어나 문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눈에 익히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도록 한다는 점, 그림을 많이 제시하여 단어나 문장의 의미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점, 제시되는 모든 단어나 문장이 유의미한 단위라는 점 등에서 영어 지도에서의 단어 중심 방법이나 전체 형태를 읽는 형태 중심 방법과 비슷하다. 이러한 의미 중심 지도 방법에는 단어식과 문장식이 있다.

가) 단어식

단어식은 단어법이라고 하며, ‘아버지’, ‘우리’ 등과 같은 단어를 중심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시각 어휘나 학생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낱말을 지도한다. 단어식은 무의미 문자의 기계적인 암기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나 모든 글자를 일일이 시각화하여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나) 문장식

문장식은 문장법이라고 하며, ‘철수야, 안녕?’처럼 처음부터 문장을 통하여 문자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문장식 지도법은, 사물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부분의 분석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구조주의 철학과 형태 심리학의 영향이 반영되어, 전체 구조에 해당하는 문장을 문자 지도의 기본 단위로 삼고 있다. 이 방법은 언어 운용의 실제적 단위인 문장을 직접 다룸으로써 생활과 직결되고, 학생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문자·음가의 연결 등을 소홀하게 다루기 쉽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읽어 나가기 때문에 발음보다는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둘 수 있다. · 제한된 단어, 문장만 지도하여 학습이 쉽다. · 실생활에서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지도하므로 학습의 유발, 지속적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 · 문자 읽기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생활과 관련시켜 말해 보는 방법을 곁들여 읽기와 말하기 지도를 병행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파악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어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어렵다. · 제한된 단어, 문장만 지도하므로 학습량이 적다. · 일단 배운 글자는 그 형태 또는 기억에 의해 쉽게 읽을 수 있으나 배우지 않은 단어나 문장은 거의 읽을 수 없다. 즉, 학습의 전이가 매우 낮다. · 기억이 나지 않는 단어는 추측하여 읽게 된다.

3) 절충식 지도 방법

절충식 지도 방법은 의미 중심 지도 방법과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을 병행하는 지도법으로, 지도시기, 지도 순서, 지도 비중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교과서에서는, 입문기 학습자들의 흥미를 고려하여 의미 중심의 단어식, 문장식 지도 방법에서 시작하여 문자에 조금 익숙해질 때 자모식 지도로

단순히 연결하는 절충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절충의 형태는 발음 중심과 의미 중심의 장점을 고려하긴 하였으나, 단순 나열이나 연결에 불과하여 학습 효과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절충의 한 방법으로 균형적 지도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균형적 지도법은 읽기와 쓰기의 경험들이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도록 지도 내용을 고안한다. 총체적 언어 교수법의 측면에서 문학 체험, 의미의 이해에 관한 지도 내용을, 발음 중심 교수법 측면에서 단어 인식, 음소의 인식, 쓰기 등의 지도 내용을 구성한다. 균형적 지도법은 문학적 환경을 강조하며, 교수 방법은 아동 개인의 요구를 만족하는 개별화 된 교육과 아동 간의 활동, 교사의 직접 교수가 적절히 혼합된 지도법이다.

균형적 지도법에서 ‘균형’은 다섯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의미 중심 지도법과 발음 중심 전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경험과 흥미를 고려한 친숙 단어 학습, 때로는 글자와 음절의 대응 전략, 기본 음절표를 통한 결합 원리의 이해 등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의미 중심의 자료 제시와 발음 중심의 자료 제시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한글은 음가학습으로 시작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문장과 같은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의 분석도 가능한 문자 체계이므로, 자료의 균형적 제시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흥미와 인위적 학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학생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흥미 있는 학습 상황과 문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내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명시적이고 표준적인 평가과 학습자의 자기 평가 및 관찰과 같은 암시적 평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기초 문식성과 고등 문식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입문기 문자언어 습득은 부호를 풀고 이미 알고 있는 의미와 연결 짓는 것으로 기초 문식성 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입문기 문자 언어 습득은 독해를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고등문식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Ⅲ.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 비교

1. 교과서의 편찬·발행 및 공급 체제

교과서의 편찬·발행 제도는 교과서 편찬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에 따라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로 나뉘어진다. 국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편찬하거나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제도이다. 검정제는 교과서 저작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저작한 교과서를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며 부적합한 부분은 저작자로 하여금 수정하게 하는 제도로 검인정제라고도 불린다. 인정제는 교과서의 사용에 국가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민간 저작 도서에 대하여 국가 기관이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제도이다. 자유 발행제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의 저작이나 사용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교과서의 급여제는 학생에게 교과서를 직접 제공하여 개인이 교과서를 소유, 관리, 활용하게 하는 것이며, 대여제는 교과서를 학생 개인 소유로 지급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학교 등의 소유로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선 후배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공동 관리, 활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교과서 제도 중 한국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교과서 편찬·발행제도와 공급체제를 알아보고 이러한 교과서 제도가 교과서 구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의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 체제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국정제를 취하고 있다. 교과서의 편찬, 심의, 발행과 공급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발행과 관련된 전 과정을 국가가 관장하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정도서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으며, 교과서 편찬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교육대학교, 교원대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편찬하고 있다. 발행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심의회]의 심의·조사를 거쳐 교육부의 교과 담당편수관이 최종 정리한 후 결재 본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용 도서가 1종 도서로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교과서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다양화·정보화 등의 추세와 맞물려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김재춘 외, 2005, p. 33) 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 참여 계층과 집단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교과서를 교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필요하다.

교과서를 공급함에 있어서 한국은 급여제 방식은 취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정제 교과서를 급여하는 방식에서는, 매년, 매 학기마다 전국의 학생 수만큼 교과서를 인쇄, 보급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과서 지면 분량을 엄격히 통제 하게 된다. 제한된 지면 내에서 제재를 신고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하므로 풍부한 제재를 수록하는데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자체적으로 축소·변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미국의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 체제

미국은 교과서를 편찬·발행함에 있어서 주에 따라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대체로 인정제를 근간으로 한다. 민간 출판사가 제작·발행한 교육용 교재를 주 교육부가 심의하여 교과서로 승인하면 지역 교육청 혹은 학교가 그 범위 내에서 교과서를 채택한다. 미국의 인정제는 주 단위 인정제와 지역 인정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실행되고 있다. 22개주에서 취하고 있는 주 단위 인정제는 교과서 발행자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의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이 교육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있기는 하지만, 교사의 선호 정도에 의하여 교과서를 채택하게 된다. 미국의 연방 정부

는 교재 기금을 확보하여 주정부에 배정하는 일과 각 주의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 기본방침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 정부는 인정제라는 틀 속에서 각 주의 요구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교과서를 심의, 채택하고 있다.(김재복 외, 2006, pp. 193-195)

교과서를 공급함에 있어서, 미국은 대여제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처럼 인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문제에서 급여제를 취했을 경우보다 자유로워지므로 지면 분량을 늘릴 수 있고, 긴 제제글과 엄선한 삽화를 온전하게 교과서에 삽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여제에 따라 교과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표지, 지질, 제본 등 내구성과 견고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과 미국은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 제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특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 체제의 차이와 그 특징

구분 \ 국가	한국	미국
편찬·발행제도	국정제	인정제(검정제, 자유발행제 가미)
공급체제	급여제	대여제
국민공통교육의 이념실현정도	높음 <-----> 낮음	
교육의 다양성 정도	낮음 <-----> 높음	
교육의 자율성 정도	낮음 <-----> 높음	

주. 출처 “외국 초등국어과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 이주섭 외 저, 200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6(2), p. 240.

<표 III-1>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의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의 차이는 교육적 가치가 다르게 실현되는 결과를 낳는다. 편찬·발행제도가 국정에 가까울수록 ‘국민공통교육의 이념’을 잘 반영할 수 있으나,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낮아지기 쉽다. 반면에 자유발행제에 가까울수록 교육적 가치는 그 반대의 현상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는 교과서에 담긴 교육적 가치, 교과서 외적 체제 및 단원 구성 체제, 제재 선정 및 수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과서 개발상의 구조적·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검인정제로 전환해 가야 한다. 미국처럼 민간 출판사가 교육용 교재를 편찬·발행 할 경우, 각 학교에서는 그들의 실정에 맞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또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층도 다양해지므로,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문제들을 풀어 낼 수 있는 교과서, 즉, 현장 교사들의 바람이 담긴 교과서도 발행되게 된다. 교과서의 세부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데는 각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의 벽에 늘 부딪히게 마련이다. 거시적인 틀이 먼저 개선 될 때, 교과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과서의 구성

각 나라의 자국어는 ‘언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의 특징, 언어 교육의 강조점에 따라 교과서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구성 형태 및 교과서 구성이 자국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한국 교과서의 구성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교과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교과서로 분책되어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을 계기로 독해 중심의 국어 교육에서 벗어나고 언어 수행 기능을 총체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종래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초등학교 『국

어』 교과서를 『듣기·말하기3』, 『읽기』, 『쓰기』(또는 『듣기·말하기·쓰기』, 『읽기』의 두 권)으로 분책되었다. 교사를 위한 교사용 지도서가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배부되며, 영역별 교과서와 달리 『국어 교사용 지도서』로 통합되어 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말하기』 교과를 위한 보조 자료로 CD 자료가 함께 개발되었다. 기존의 녹음자료(Tape)에서 발전된 형태로 고안된 CD 자료는, ‘다양한 듣기 자료 활용을 통한 능동적인 의미 구성 능력 신장’, ‘문자 언어에 의존하는 음성 언어 지도의 한계점 보완’, ‘교사용 지도서와 연계하여 수업 목표 도달도를 높이기 위한 밀도 높은 학습 전개’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듣기 자료 외에 학습의 도입부터 정리까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ICT 과정안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지나 동영상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기존의 녹음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여 특정 구간을 선택하여 듣거나 반복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구성

미국 『LITERACY PLACE』는 영역별 분책 없이 자국어 교과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다만, 학년에 따라 단원별로 교과서를 구분하여 출판하며, 학기제의 개념이 아닌 학년제의 개념으로 단원이 연계되어 있다. 또한 교과서를 대역함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서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학습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문제는 워크북을 별도로 구입하게 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워크북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세부기능과 전략을 교과서와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교과서의 각 제재와 연계하여 문제풀이 및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작가와 삽화가의 인터뷰, 도서목록, 새로운 도서 소개, 학습 보조 자료 등을 제공하여 오프라인 교과서의 한계를 온라인으로 보완하며 미디어 공간으로 학습이 확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 구성형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3) 본래 5차 교육과정기부터 7차 교육과정기에는 분책 된 교과서 중 하나가 『말하기·듣기』였으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기에서는 『듣기·말하기』로 영역명의 제시 순서가 바뀌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듣기·말하기』로 제시한다.

같다.

<표 III-2>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교과서 구성

국가 구분	한국	미국
주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학년 :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학기당 3권, 총 6권) · 3~4학년 :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학기당 3권, 총 6권) · 5~6학년 : 듣기·말하기·쓰기+읽기 (학기당 2권, 총 4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 총 6권(단원당 1권) · 2, 3학년 : 총 2권(3단원당 1권) · 4, 5학년 : 총 1권(6단원 1권)
워크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년 : 총 6권(단원당 1권) · 2, 3학년 : 총 2권(3단원당 1권) · 4, 5학년 : 총 1권(6단원 1권)
교사용 지도서	각 학년별 학기당 1권(총 2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 : 각 학년별 총 6권 (단원당 1권) · 4~5학년 : 각 학년별 총 2권 (3단원당 1권)
교과서 보조자료	듣기·말하기 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udio Tape (모든 학년 단원당 1개, 총 6개씩) · 출판사 홈페이지

한국의 언어기능별 분책 교과서는 언어 기능의 교수-학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역별 독립 지도, 심화지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언어기능별 분책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분책된 영역 교과서별 목표가 중복되어 지루함을 줄 수 있으며, 영역간 목표의 단순 병합으로 영역 간 연계가 미비하다. 물론, 교과서 분책으로 오는 교사 및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단원명, 단원 목표, 언어 형식 등에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도록 하고 있지만 영역 간 연계가 이루어진 곳은 같은 목표의 반복으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 언어사용이 실제로는 나누어 질 수 없으며,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

셋째, 초등학교 단계에 있는 학습자의 인지심리학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피아제(Piaget)의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아동기는 발달상 심신이 미분화적이기 때문에 분과적인 사고능력이 미숙하다.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에게 학습은 통합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국어 교육도 독해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언어 수행 기능을 신장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정착 되어 있으므로, 국어 교과서의 통합이 이루어질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나누어 질 수 없는 언어 사용을 분리하여 교과서에서 학습한 언어와 삶의 언어 사용의 괴리 문제, 흥미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삶을 바탕으로 한 통합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합형 교과서는 언어 사용의 총체성을 살리고, 언어 영역 간 연계성을 확보하며, 교과서의 여러 기능을 연계하여 교수·학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이주섭, 2007, p. 174) 한국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다섯 번째 단원인 '5. 생각을 펼쳐요'의 단원 내용을 보면, 『읽기』 교과서에서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보는 활동, 『듣기·말하기』 교과서에서는 생각이 잘 드러나게 말하는 방법을 알고 말 할 내용 정리하기,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까닭을 들어 말하기, 『쓰기』 교과서에서는 내 생각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고 발표하기 등의 활동 들이 중심이 되어 세 권의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생각 드러내기와 관련하여 세 교과서에서 비슷한 활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각각의 언어 기능에 맞게 읽기, 말하기, 쓰기와 관련된 활동을 나누어 제시함으로써 분절된 언어 기능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는 점차 떨어지게 된다. 하나의 교과서 속에 글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 텍스트를 제시하여 그 속에 나타난 글쓴이의 생각과 생각을 펼쳐내는 방법을 살펴보고, 텍스트나 텍스트에 나오는 등장인물, 또는 텍스트와 관련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말해보게 한다면 세 교과서에 나온 학습 내용을 통합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독서학습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다만, 학습 목표에 따라 주된 텍스트만으로 언어기능 학습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미국 교과서의 워크북 형태와 같은 보조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교과서 통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교과 학습을 위한

미국 『LITERACY PLACE』의 홈페이지 체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따라 보충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으며, 관련된 참고 텍스트 등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 자료, 교수 학습 자료를 지원할 수도 있으며, 교과서 개발자와 교사, 학습자 간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

3. 단원의 구성 체제

가. 단원 구성 및 전개방식

1) 단원 구성 방식

가) 한국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방식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어 사용의 실제(목적)를 축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표현’의 4개의 언어 사용 목적을 각 단원 구성의 기본 원리로 삼았다. 이에 따른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단원별 언어 사용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3> 1학년 1학기 한국 교과서의 단원별 언어 사용 목적

단원명	언어 사용 목적
1. 배우는 기쁨	정보 전달
2. 이렇게 생각해요	설득
3. 마음을 나누며	사회적 상호작용
4. 아, 재미있구나!	정서 표현
5. 생각을 펼쳐요	설득
6. 느낌이 솔솔	정서 표현

언어 사용 목적에 따른 목표 중심 단위 구성 방식은 교육과정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단원의 초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지식 학습에 효율적이다. 그러나 목표중심 단위 구성 방식은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국어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부적인 목표를 분절적으로 학습한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적인 국어 능력으로 종합된다고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학습자의 흥미나 동기를 유발하기 어렵다. 세부 목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하는 구성으로 인하여 이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루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최미숙 외, 2009, p. 67)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위 구성 방식

미국 『*LITERACY PLACE*』는 문식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주제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1학년 교과서를 예로 한 단원의 구성 원리를 보면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위 구성 원리

상위 주제	개인적 문식성	지적 문식성	사회적 문식성
하위 주제 (하위 주제 설명)	개인의 목소리 (우리는 서로의 독특한 개성들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합니다.)	문제 해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협동심 (성공적인 팀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협동이 필요합니다.)
단원명	1. Hello!	2. Problem Patrol	3. Team Spirit
단원 주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합니다.	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즐겁습니다.
멘토 (Mentor)	작가 : Donald Crews	수의사 : Fay Vittetoe	축구감독 : Danny Prenat
문식성 공간 (Place)	작가의 집	수의사의 사무실	축구경기장
프로젝트 (Project)	스크랩 북 만들기	애완동물 돌보기 안내문 만들기	게임 규칙 책 만들기

상위 주제	개인적 문식성	지적 문식성	사회적 문식성
하위 주제 (하위 주제 설명)	창의적 표현 (사람들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표현합니다.)	정보 관리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공동체 참여 (공동체란 그 구성원들이 이룩해낸 업적 위에 세워집니다.)
단원명	4. Imagine That!	5. Information Finders	6. Home Towns
단원 주제	상상력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정보는 많은 곳에서 얻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멘토 (Mentor)	벽화가 : William Walsh	해양생물학자 : Laela Sayigh	시장 : Steve Yamashiro
문식성 공간 (Place)	예술가의 작업실	수족관(Aquarium)	시장의 사무실
프로젝트 (Project)	이야기 벽화 만들기	정보 책 만들기	지도 만들기

단원의 구성을 보면, 먼저 개인적 문식성, 지적 문식성, 사회적 문식성의 세 가지 상위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이 세 가지의 상위 주제 아래 각각 두 개의 하위 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상위주제와 하위 주제는 학년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하위 주제는 다시 학년별로 단원 주제를 설정하여, 한 학년 당 총 6개의 단원 및 그에 따른 주제로 구성되게 된다. 이러한 주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총체적 경험을 통해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주제 중심 교과서는 가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주제란 가치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 중심의 교과서는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주제를 잘 선택하여 교과서를 구성한다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촉발할 수 있다. (최미숙 외, 2009, p. 66)

이상으로 살펴 본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원 구성 방식을 보면, 한국은 언어 사용 목적을 바탕으로 한 목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 『LITERACY PLACE』는 문식성 기능을 바탕으로 한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목표 중심 단원 구성방식은 각각의 언어 기능과 구

체적인 지식 학습에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주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은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분책된 교과서의 구성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미국 『LITERACY PLACE』는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언어 기능 및 가치 교육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2) 단원 전개 방식

가) 한국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이전의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대단원 형식을 취하여 하나의 대단원 안에 두 개의 소단원을 두었었지만, 소단원간의 단절 문제와 같은 비판에 따라 하나의 단원을 단위로 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단원 구성이 변화되었다. 단원의 앞쪽에서는 주로 개별 지식이나 기능, 맥락에 대한 이해 학습을 하고 뒤쪽에서 적용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시에서는 이해 학습을 하고 2차시에는 앞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해 보게 구성하거나 1~2차시에서는 이해학습, 3~4차시에서는 적용 학습의 관계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기본 원리이고, 학습 목표에 효율적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단원에 따라서는 1차시에서는 지식학습, 2차시에서는 기능학습, 3차시에서는 맥락 학습의 순서를 가지는 것으로 구성 할 수도 있다.

단원 전개를 위한 구성 체제의 기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한국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듣기·말하기』 / 『쓰기』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적용 학습		정리	놀이터
	이해 학습		적용 학습			
· 단원명 · 문제상황 · 단원 학습 목표	· 차시 목표 ·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 차시 목표 ·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 차시 목표 · 적용 학습 활동		· 정리 · 평가 · 실천	사고 학습
1쪽	2쪽	짝수(2, 4쪽)		홀수(3, 5쪽)	1쪽	홀수(1쪽)

『읽기』 교과서의 단원 구성체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담화(글/언어 자료/작품)				
도입	지식·기능·맥락의 이해 학습		지식·기능·맥락의 적용 학습		정리	놀이 터	
	이해 학습		적용 학습				
· 단원명 · 문제상황 · 단원 학습 목표	· 차시 목표 ·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 차시 목표 · 이해(지식, 기능, 맥락) 학습 활동	· 차시 목표 · 적용 학습 활동		· 정리 · 평가 · 실천	사고 학습	
1쪽	2쪽	짝수(4, 6, 8쪽)	홀수(9, 11, 13쪽)		1쪽	홀수 (1쪽)	

<표 III-5>에서 보듯이 각 단원은 크게 ‘도입-이해학습-적용학습-정리’의 네 단계로 구성되고, 각 단계마다 초점화 된 활동 과제가 제시된다. 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해학습-적용학습’에서는 과제를 해결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단원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한 단원의 전개는 단원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목표 중심·과정 중심의 단원 체제를 취하고 있다.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원 전개 방식

미국 『LITERACY PLACE』는 한 단원 당 100쪽이 넘는 분량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교과서 상의 단원 구성은 도입, 전개부분, 어휘해설로 구분해볼 수 있으나, 교사용지도서를 살펴보면 도입(Unit at a Glance), 전개(다양한 텍스트), 정리(Unit Wrap-Up)의 형태로 목차를 구분 해 놓고 있다.

4) 미국 『LITERACY PLACE』는 단원별로 1권씩 교과서가 구성되어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한 학년 분량이 600쪽을 훨씬 넘는다. 한국 교과서는 영역별로 100~135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학기별로 교과서가 달라지므로, 한 학년 분량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LITERACY PLACE』는 텍스트 전문을 신는 경우가 많고 15쪽 이상의 작품도 선정되어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주 교과서가 이렇게 텍스트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에 워크북에는 주교과서와 관련한 여러 언어 기능과 전략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전개 부분은 다양한 문종의 텍스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 단원 당 크게 다섯 개의 문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글의 종류별로 주 텍스트와 보조 텍스트⁵⁾가 제시되어 있으며, ‘반응하기’와 ‘작가 소개’, ‘멘토 소개’가 가미되어 있다. 워크북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정리부분에 수행하도록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고 있다. 텍스트가 중심이 되는 미국 『LITERACY PLACE』에는 한 단원내에서도 글의 종류가 다양하고 단원별로도 주제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글이 실려 있어, 단원 텍스트의 종류를 하나의 양식으로 도식화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교과서의 한 단원인 1학년 6단원의 구체적인 단원 전개 방식을 살펴보면 <표 III-6>와 같다.

<표 III-6> 미국 『LITERACY PLACE』의 1학년 6단원 전개 방식

UNIT 6. Hometowns							
1주 (1주는 5차시 기준)	2주	3주	4주	5주	6주		
단원 도입	문종별 제재 글					단원 정리 (워크북)	어휘 해설
	아프리카 신화	논픽션	사실주의적 소설	공상문학	프랑스 민간 설화		
· 단원명 · 단원 목차 · 문식성 공간 안내 · 단원 주제	· 주 텍스트 (26쪽) · 보조 텍스트 (시-2쪽) · 반응하기 및 작가소개 (2쪽)	· 주 텍스트 (10쪽) · 보조 텍스트 (매거진-2쪽) · 반응하기 및 작가소개 (2쪽)	· 주 텍스트 (32쪽) · 멘토 (2쪽) · 반응하기 및 삽화가소개 (2쪽)	· 주 텍스트 (16쪽) · 보조 텍스트 (시-2쪽) · 반응하기 및 삽화가소개 (2쪽)	· 주 텍스트 (22쪽) · 반응하기 및 삽화가소개 (2쪽)	· 프로젝트	어휘 학습
4쪽	30쪽	14쪽	36쪽	20쪽	24쪽	워크북	4쪽

미국 『LITERACY PLACE』에서 발행한 주 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게 되는 워크북에는, 주 텍스트와 관련하여 읽기, 쓰기, 문법, 관용법, 언어 사용 전략에

5) 보조 텍스트는 주 텍스트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보통 2쪽 분량으로 주 텍스트에 비하여 매우 짧으며, 보조 텍스트가 제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하여 실제로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원 전개 방식을 보면, 한국은 이해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성 속에서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해가도록 전개 하고 있으며, 미국 『*LITERACY PLACE*』는 다양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중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단원의 구성요소와 그 내용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원 전개를 위한 구성 체제는 크게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원의 구성요소를 크게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로 나누고, 단원과 단원 사이 또는 교과서 뒤쪽에 제시 된 참고자료를 덧붙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원의 각 단계는 다시 세부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단원의 각 단계별로 어떤 세부 요소가 제시 되어 있으며 교과서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잘 맺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도입부

도입부는 단원 전체를 개관하여 학습 방향을 안내 할 뿐만 아니라 단원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한국 교과서의 도입부

한국의 1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의 6단원 첫 장을 살펴보면, 상단부터 단원명, 삽화, 사전 지식에 대한 질문, 단원 학습 목표가 한 쪽 분량으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첫 번째 장치가 되는 단원명은 한 눈에 들어오는 큰 글자로 제시되어 있으며, 언어 사용 목적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단원명이 언어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제시 된 것은 아니다. 1학년 1학기 『읽기』 1단원은 언어 사용 목적이 정보 전달이나, 단원명은 매우 포괄적

인 ‘배우는 기쁨’으로 언어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반면에 설득을 언어 사용 목적으로 하는 5단원은 단원명이 ‘생각을 펼쳐요’로 제시 되어 단원 학습 목표와 언어 사용 목적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단원명의 진술 형태는 부사구나 형용사구, 문장 형태 등 다양하며 특정한 형식에 얽매어 있지는 않다.

단원명 아래에 제시 된 삽화는 단원에 제시 된 텍스트와 관련된 삽화로, 삽화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유추하고,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삽화 아래에는 ‘나는 어떤 옛이야기를 알고 있나요?’와 같이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단원 도입의 제일 하단에는 단원 정보 및 단원에서 공부 할 내용, 단원 학습의 필요성이 글상자에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3~4 문장 정도가 제시된 글상자에는 단원의 학습 방향을 알기 쉽게 설명 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텍스트의 종류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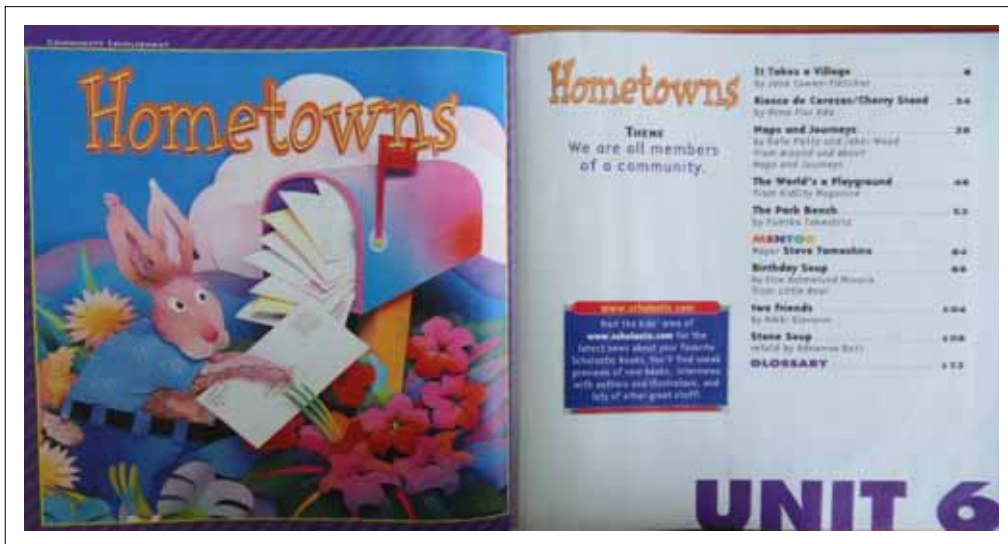


[그림 III-1] 한국 교과서의 단원 도입의 예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도입부

미국 『LITERACY PLACE』는 4쪽에 걸쳐 단원 도입이 이루어진다. 단원

도입의 첫 장은, 여백 없이 한 쪽 전체가 삽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삽화 위에 단원명을 크게 제시 해 놓고 있다. 두 번째 쪽에는 단원명이 작게 다시 제시되고, 단원 주제, 제재 글과 멘토 등이 안내 된 단원 목차, S사 홈페이지를 안내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목차에서는 번호 없이 각 항목을 제시하여 특정한 학습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쪽과 네 번째 쪽에 걸쳐 크고 화려한 삽화가 이어지며, ‘Welcome to LITERACT PLACE’라는 문구와 함께 단원의 문식성 공간이 소개되고, 단원의 주제가 또 한 번 제시된다. 그리고 작은 삽화에 해당 단원에 소개 되는 멘토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 단원에서 만나 볼 인물과 공간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2] 미국 『LITERACY PLACE』의 단원 도입의 예

미국 『LITERACY PLACE』는 4쪽의 단원 도입 부분 중 3쪽에 걸쳐 화려한 삽화가 제시되어 학습자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단원의 주제가 두 번이나 제시되어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있다. 한 단원의 분량이 많은 만큼 단원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 점도 인상적이다. 목차를 통해 단원 학습의 전체 일개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학습 동기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한 소개 부분에는 ‘Scholastic사의 새로운 책을 만나 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있어 다소 상업적인 면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는 미국의 인정제에 따른 출판사들의 경쟁체제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작가나 삽화가의 인터뷰 자료 등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보조 자료가 탑재되어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공간을 열어주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도입 부분을 보면, 두 교과서 모두 단원의 주제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여 단원의 학습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학습 동기 유발 면에서는, 미국 『LITERACY PLACE』가 단원의 목차를 통한 텍스트 안내와 크고 화려한 삽화로 정의적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으며, 한국 교과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질문과, 단원 학습의 정보 및 필요성, 목표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인지적 측면에서 학습 동기를 유발 시키고 있다.

2) 전개부

전개부는 단원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을 본격적으로 담아내는 기능을 한다. 한국의 국어 교과서는 전개부가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의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LITERACY PLACE』는 단원 주제와 관련한 텍스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비교 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 교과서 중 텍스트가 중심을 이루는 『읽기』 교과서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가) 한국 교과서의 전개부

한국 교과서의 전개부는 크게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바탕글과 학습 활동이 큰 즐거움을 이루는 차시 학습에서는, 삽화와 더불어 아이콘, 캐릭터, 날개, 각주 등의 학습 보조 장치가 마련되어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을 돕고 있다.

먼저 이해 학습은,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 전략 등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학습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해당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은 공부할 문제를 제시하는 아이콘 색깔, 활동을 구분하는 방법에서도 형식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 이해학습에서는 초록색 상자 안에 차시 목표가 제시 되어 학습의 방향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초록색 아이콘의 수가 하나이면 1차시, 두 개이면 2차시 수업 분량임을 나타낸다.

본문 활동은 아라비아 숫자로 진행되는데, 1번은 텍스트 읽기, 2번은 텍스트의 내용 파악하기, 3번은 차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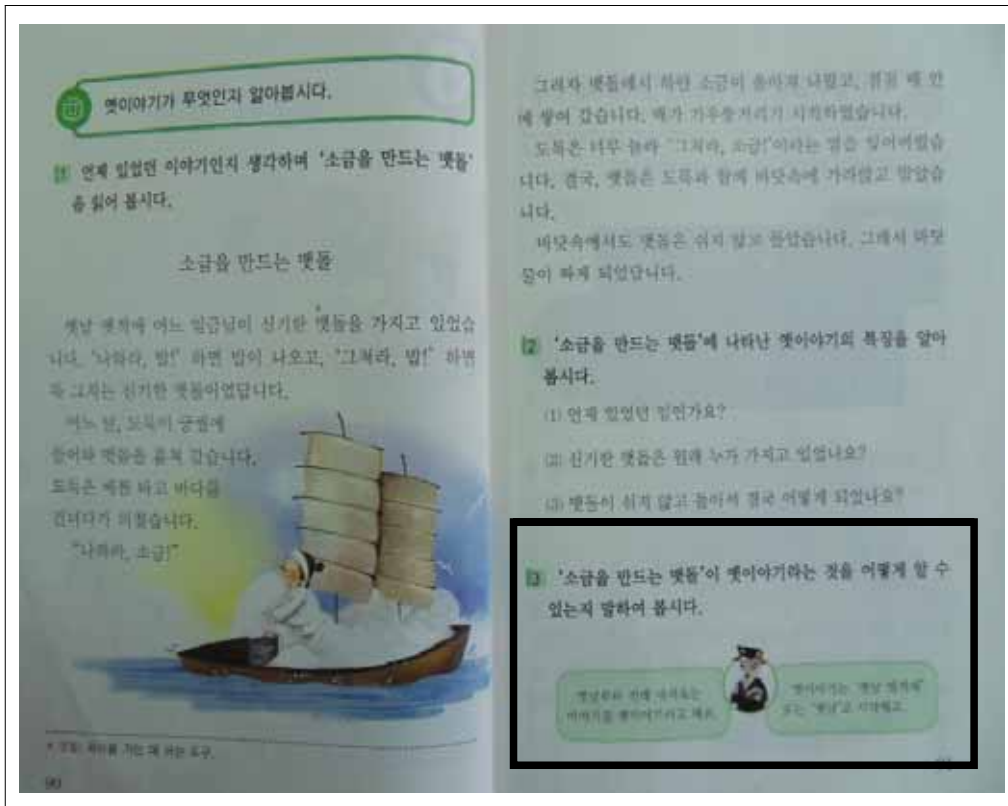
1번에는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는데, 텍스트를 살펴보면, 이해학습과 적용학습을 통틀어 1학년 1학기 읽기 책에는 시(노래) 5편, 동화 6편(그림동화, 전래동화, 창작동화 등) 으로 시와 동화 중심의 글이 실려 있으며, 일기 글, 쪽지 형식의 글도 학습 목표 도달을 위한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텍스트가 변형되거나 전문이 실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1학년 1학기 『읽기』 책에 실린 작품 중 ‘소금을 만드는 맷돌’은 전래동화이긴 하나 원래의 출처⁶⁾에 실린 제목은 ‘이상한 맷돌’이다. 이 텍스트의 경우 제목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6쪽 분량 정도의 글이 1쪽 분량 정도의 글로 축약되어 실려 있다. 텍스트에 어려운 낱말이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낱말이 있는 경우에는, 각주를 통해 낱말의 뜻을 설명 해 주고 있다. 단어 수준의 불필요한 장애를 넘어서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핵심적 학습 활동에 몰입 할 수 있게 하는 각주 설명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와 관련한 삽화는 본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한다. 글에서 묘사 되고 있는 배경이나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사실감이나 현장감을 높여주게 되고, 이를 통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텍스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삽화일지라도 교과서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주고 독서의 피로감이나 학습의 지루함을 덜어주게 된다. 삽화의 유형과 크기는 매우 다양하다. 삽화의 크기는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에서부터 한 지면의 절반 크기, 한 지면 크기, 양면에 걸친 크기 등이 있으며, 삽화의 유형은 사진, 만화, 수채화, 유화, 콜라주,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 교과서를

6) 텍스트가 실려 있는 책은 『한국 전래동화 6집, 창비, 2001』이다.

보면, 이전 교과서에 비해 삽화의 크기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절반 정도의 삽화가 주를 이루긴 하나, 이호백이 쓰고 이억배가 그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수탉’을 수록한 부분을 보면 한 지면 크기나 한 지면을 넘어선 크기의 삽화를 원 동화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채도가 높은 색감을 그대로 사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이야기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있다.

2번에는 텍스트의 이해와 관련한 2~3가지 질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3번은 이해학습이 이루어지는 차시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다.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해 학습에서 언어 사용과 관련한 개념이나 전략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다른 언어 사용 상황에 그 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며, 내용 없이 활동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방지해 준다.(이주섭, 2008, p. 296) 이러한 이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그림 III-3]과 같이 학습 도우미인 염소선생님이 등장하여 차시 학습 목표에 대한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염소선생님을 활용한 단서의 제공은 이해 학습에 대한 정답과 해결책을 거의 제시해 주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교사가 학습 내용을 놓치지 않게 해주고 학습자 스스로 공부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학습 목표에 대하여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III-3]에 제시된 차시의 경우, [그림 III-1]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미 대단원의 학습 목표에서도 이해학습의 차시 목표와 관련하여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제시되어 있고, 본 차시에서도 캐릭터를 통해 정답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시목표와 관련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는 고취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캐릭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학습을 안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습 방향과 문제 해결에 대한 단서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야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상세하고 안내가 많은 교과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를 저해 할 수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억제 시킬 수도 있다.



[그림 III-3] 한국 교과서의 이해 학습의 예

적용학습은 이해 학습에서 학습한 것을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의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산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대체로 이해 학습에서는 짧은 텍스트를 통하여 방법을 익히게 하고, 적용학습에서는 좀 더 길면서 실제적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황색 상자 안에 차시 목표가 제시 되어 있으며, 이해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주황색 아이콘의 수가 하나이면 1차시, 두 개이면 2차시 수업 분량임을 나타낸다. 학습활동은 이해학습의 아라비아 숫자 전개와 달리, 학습 기호로 진행된다. 회색, 분홍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기호가 사용되며 국어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 된 학습 기호별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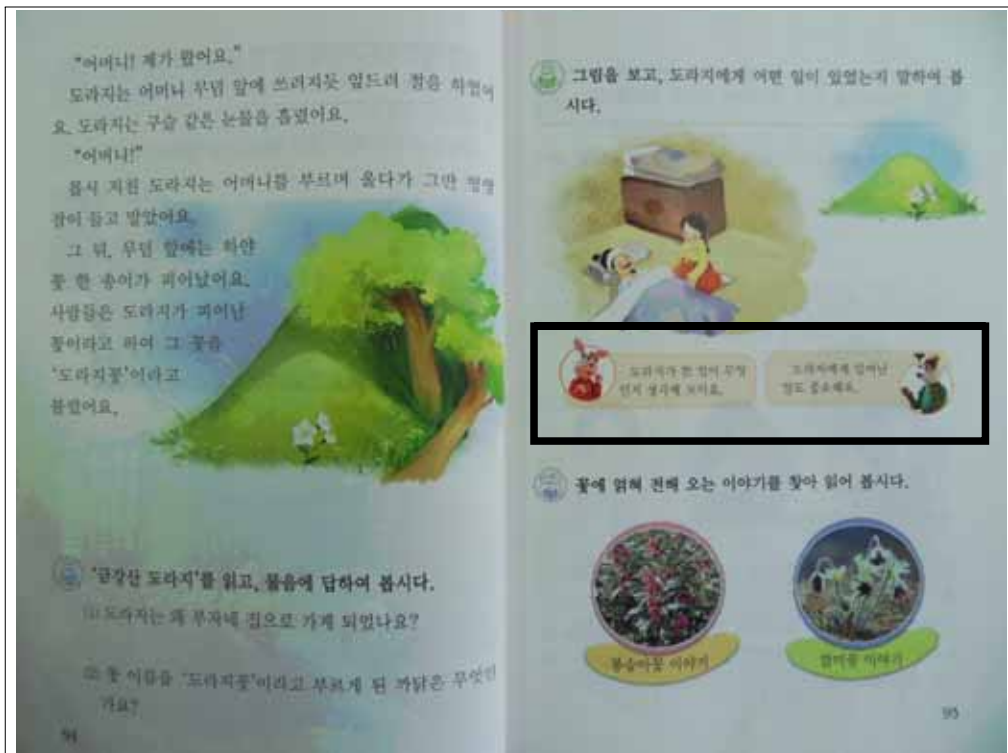
<표 III-7> 한국 교과서의 학습기호별 활동 내용

학습 기호	활동 내용
회색	글을 읽기 전에 제재, 차시 목표,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맥락 인식 활동
분홍색	글을 읽으면서 이해 학습에서 배운 지식, 기능의 원리를 적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맥락 적용 활동
파란색	글을 읽으면서 또는 읽은 뒤에 텍스트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
초록색	글을 읽으면서 또는 읽은 뒤에 지식, 기능의 원리를 적용하는 활동
보라색	글을 읽은 뒤에 텍스트, 작가, 상황 맥락 및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관하여 학습자 간에 대화와 토의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맥락을 조정해 나가면서 의미를 구성하는 맥락 소통 활동

읽기 교과서 적용학습에 제시된 다섯 개의 학습 기호 중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회색 기호와, 학습 결과의 전이 및 심화를 위한 보라색 기호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학습 기호와 그에 따른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읽기 교과서가 읽기 전, 중, 후의 활동 과정을 강조하여 교과서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활동을 하는 과정에 대한 강조는 국어 교과서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듣기 활동 때에도 읽기와 마찬가지로 전, 중 후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말하거나 쓰기 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조직, 표현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교과서에는 학습 기호와 함께 아래에 제시된 [그림 III-4]와 같이 학습을 돕는 학생 동료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주로 지식이나 기능의 원리를 적용하는 학습인 초록색 학습기호 활동 속에 나타난다. 캐릭터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토끼 친구와 강아지 친구로, 적용학습을 안내하는 설명이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에 대한 보충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학습 동료 캐릭터가 등장하는 아래 그림에서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토끼 친구와 강아지 친구가 설명해주고 있다. 이해학습이 이루어지는 전 차시에서는 앞의 [그림 III-3]과 같이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학습’이 이루어졌으므로, 지식이나 기능의 원리를 적용하는 초록색 학습 기호의 활동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해당 단원에서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 적용학습의 학습 활동으로 나오는 것이다.⁷⁾ 이 때, 학생 동료 캐릭터가 등장함으로 인해 학생들은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실마리를 얻게 되며,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와 같이 학생 동료 캐릭터는 앞서 언급했던 선생님 캐릭터에 비해 직접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단서 등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간접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학생 스스로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4] 한국 교과서의 적용 학습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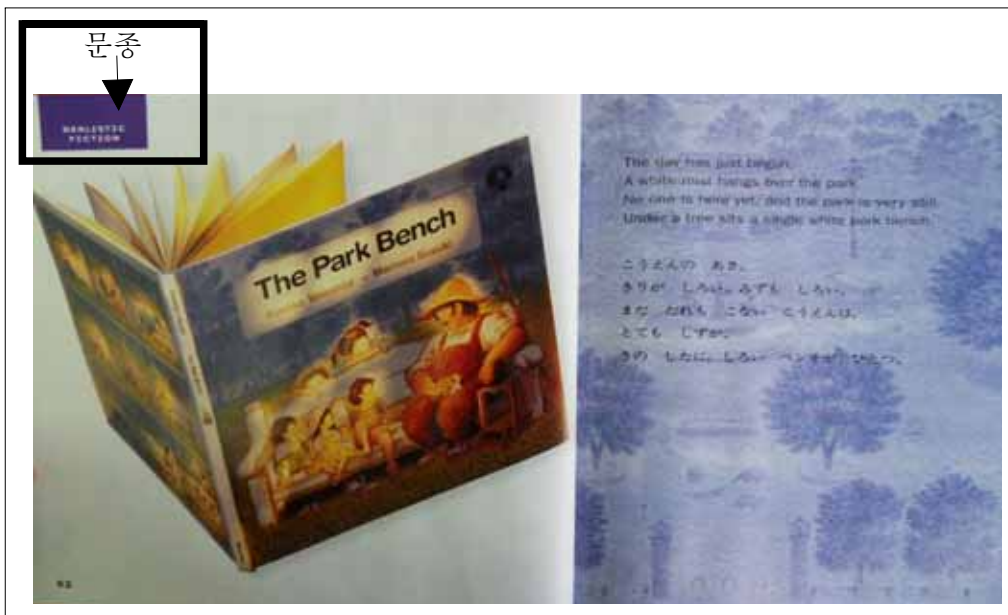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전개부

미국 『LITERACY PLACE』의 전개부분은 단원 주제와 관련한 텍스트로

- 7) 등장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보는 학습은 전 차시는 아니지만, 해당 단원의 전 단원에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림에 제시된 단원에 등장하는 학생 동료 캐릭터는 전 단원의 학습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며 문제 해결을 돕고 있는 것이다. 차시 학습 활동이 잘 연계되어 이해 학습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학생 동료 캐릭터가 전 차시에서 배운 이해학습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성되어 있는데, 1학년 교과서는 크게 다섯 개의 문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학년 6단원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신화, 논픽션, 사실주의적 소설, 공상 문학, 프랑스 민간 설화의 문종별 5개의 주 텍스트가 수록되었으며, 몇몇 주 텍스트에는 문종과 관계없이 보조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기도 하다. 좋은 본이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멘토(mentor)’와 주 텍스트에 대한 ‘반응하기(Respond) 및 작가 소개’도 전개부를 이루는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그림 III-5]는 6단원의 세 번째 주 텍스트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글의 종류는 사실적인 소설이며 텍스트의 첫 장 상단에 문종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차시를 뚜렷이 나누고 있지 않으며, 각 텍스트마다의 특별한 학습 목표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학습 목표가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때 중심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다소 불분명해지나 교과서를 교수·학습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교사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되게 된다.



[그림 III-5] 미국 『LITERACY PLACE』에 수록된 텍스트의 예

교과서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림 III-5]에 제시된 텍스트는 32쪽에 걸쳐 문학 작품의 전문을 실어 놓고 있을 뿐만 아

나라 일본 작가의 소설임을 고려하여 일어로 된 원문도 교과서에 함께 수록하고 있다. 삽화는 한 쪽 전체를 모두 차지하거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32쪽 중 23쪽에 달하며, 한 쪽을 차지하는 경우도 여백이 있는 경우와 여백이 없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학습자들은 이렇게 풍부한 글과 그림을 통해서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도 함께 이해하게 된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재는 이것만이 아니다. 앞서 문종에서 언급했듯이, 6단원에서만 보더라도 아프리카 신화, 프랑스 민간 설화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문종별, 문화별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접하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문화적 소양을 고양하여 언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게 하며, 건강한 언어관을 갖는데 기여할 수 있다.

주 텍스트 다음에는 좋은 본이 되는 인물을 소개하는 ‘멘토’가 [그림 III-6]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 텍스트 다음에는 삽화와 글을 포함하여 2쪽 분량의 짧은 보조 텍스트가 수록되곤 하나, 각 단원마다 어느 한 부분에는 보조 텍스트 대신에 ‘멘토’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 범교과적이며 실제적인 언어 사용을 위하여 각 단원마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고 배울만한 사람을 멘토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그 인물과 관련된 공간을 문식성 공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2쪽 분량으로 제시된 ‘멘토’ 부분에서는 인물이 주로 하는 일이 사진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6] 미국 『LITERACY PLACE』의 ‘멘토’학습의 예

보조 텍스트나 ‘멘토’ 다음에는 ‘반응하기’ 활동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 텍스트와 관련된 활동으로 주 텍스트마다 한 번씩 활동하게 되어 있다. ‘반응하기’에는 읽은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 글쓰기 안내, 문학에 대한 심층 이해를 위한 활동인 ‘문학 써클(Literature Circle)’이 제시되어 있다. 1학년 교과서의 6단원 세 번째 텍스트 다음에 수록된 ‘반응하기’ 부분을 번역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8> 미국 『LITERACY PLACE』의 ‘반응하기’ 학습의 예

‘반응하기’ 학습 내용(‘The Park Bench’를 읽고)	
읽은 내용 파악하기	1. 아침에 하얀 벤치에 처음으로 멈춰 선 사람은 누구였나요? 2. 왜 엄마와 아이가 노인과 함께 그 벤치에 앉아 있나요? 3. 어떻게 하얀 벤치가 성이 되기도 하나요? 4. 공원 지기가 하얀 벤치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5. 공원 지기와 Steve Yamashiro 시장은 어떤 점이 닮았나요?
상장 쓰기	공원 지기는 하얀 벤치를 정성껏 돌봅니다. 그는 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공원지기에게 주는 상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 사람의 선행에 대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상장에 이름도 붙여 주고, 왜 이 상장이 중요한지 이야기 해 보세요.
문학 써클	이야기 속의 공원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나요? 하루 중 언제 공원에 가장 가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요?
삽화가 소개	Mamoru Suzuki Mamoru Suzuki는 일본에서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작가 Fumiko Takeshita와 함께 몇 권의 아동용 도서를 만들었습니다. 스즈키는 하루 동안 태양의 조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The Park Bench에서도 그는 공원에서 시시각각 보여주는 태양 빛과 그림자를 표현했습니다. Mamoru Suzuki가 그림을 그린 다른 책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ll Chip Stay Home? · Chip Goes to the Seaside · Wayside Friends

반응하기 에서는 <표 III-8>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읽은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주 텍스트를 사실적으로 이해하여 답할 수 있는 질문뿐만 아니라, 주제 파악 질문, 보조 텍스트나 ‘멘토’와 관련하여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한 총체적인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반응하기’의 두 번째 코너인 글쓰기를 안내하는 부분에서는 상상 만들기, 카드 만들기, 일기 쓰기, 자신만의 이야기 만들기 등 흥미 있는 다양한 형태의 쓰기 과제가 제시되는데, 이는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 수행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문학에 대한 심층 이해를 위한 활동인 ‘문학 씨클’은 동료학습자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주 텍스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문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듣기·말하기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반응하기 지면의 오른쪽에는 작가나 삽화가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작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작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작가의 다른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작품에 관심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 교과서의 전개부분을 보면, 이해학습과 적용학습 내에서는 언어활동을 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 기호, 캐릭터, 각주 등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학습 장치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며 교과서 활용 방안을 잘 안내할 때, 학습 하는 방법에 대한 상위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학습의 효과도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 된 지면으로 인하여 제재 글의 전문이 실리지 않거나 변형된 경우가 있어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 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미국 『*LITERACY PLACE*』는 제재 글이 교과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문학작품을 충분히 감상 할 수 있도록 문학 작품의 전문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화려하고 다양한 크기의 삽화가 많이 실려 학습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제재 글과 관련된 어휘, 이해도 점검, 언어 기능, 문법, 발음 학습 등은 워크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언어 기능에 대한 실제적인 학습은 워크북에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주교과서만을 봤을 때는 읽기 활동이 주를 이

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워크북과 상호 보완하면서 한국 국어교과에서 구분된 영역인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과 관련된 학습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미국 『*LITERACY PLACE*』는 주제와 관련한 문식성 공간 및 멘토를 설정하고, 반응하기에서 실제적인 언어 학습이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상황 맥락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교과서 전개부의 두드러진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 교과서도 이해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개 과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풍부하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원문을 실을 수 있는 지면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에는, 원작에 대한 정보를 교과서 뒷부분이 아닌 텍스트 하단에 각주 형식으로 제시하여 텍스트 전문을 읽을 수 있는 발판을 좀 더 친절하게 마련해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3) 정리부

정리부는 단원 학습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단원 학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 국어 교과서의 정리부는 1쪽 분량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미국 『*LITERACY PLACE*』는 별다른 단원 정리 학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 『*LITERACY PLACE*』는 프로젝트가 제시된 워크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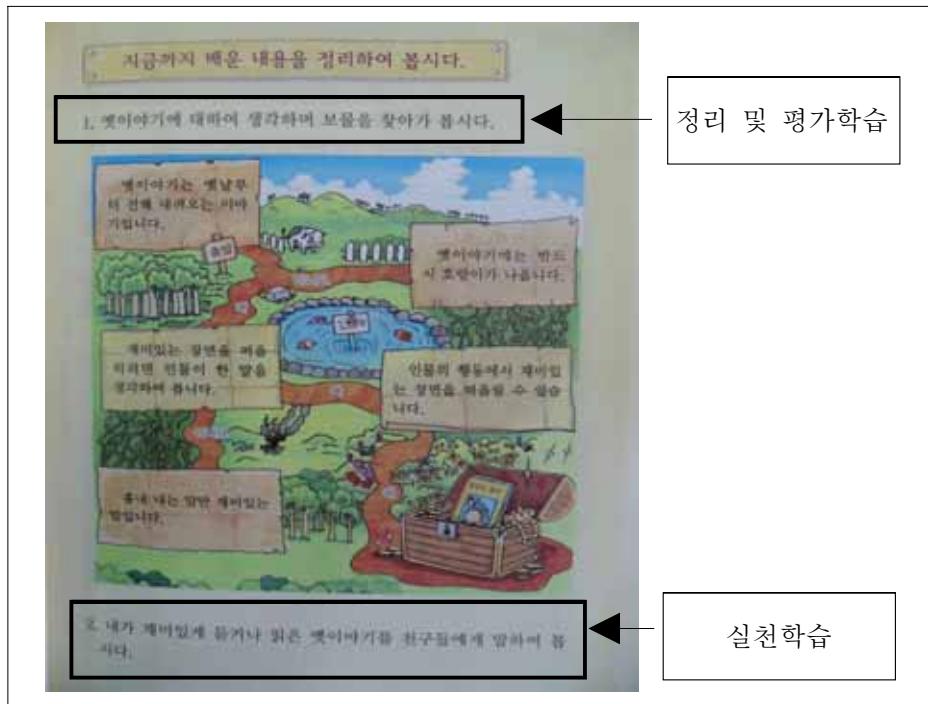
가) 한국 국어 교과서의 정리부

정리 학습은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제대로 학습을 하였는지 평가를 해 보며, 실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실천 학습은 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해당 학습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학습 과제 형태로 부여 할 수도 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형태는 학생들이 흥미 있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핵심 내용 몇 가지를 단순히 나열하고 질문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그림 III-7]의 ‘정답을 찾아 길 떠나기’와 같이 상황이나 장면을 담아 맥락적으로 구성하거나, ‘선 연결하기’ 등과 같이 쉽게 해결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 쪽 이내에 간략하게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평가

해야 하므로, 이해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비롯한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데 그치게 된다.

정리학습의 두 번째 큰 틀인 실천학습은, 실생활과의 연계를 강화한 폭넓은 생활 속의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으나, 마지막 차시의 끝 무렵에 이루어짐을 감안 할 때 가정 학습으로 제시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학습’을 위한 자료와 활동이 전개부에 제시되어 있으나 교실 밖 현실에서 ‘통하는’ 자료와 활동은 정리학습의 실천 과제로 매우 간단하게 부여되고 있다. 단편적인 지식 확인으로 끝나버리는 정리학습의 첫 번째 틀을 보완하고 평가 안내라는 교과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기 점검 기준이 제시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인 자기 점검 및 채점 기준을 통해 자신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반성 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을 통해 자신이 발전 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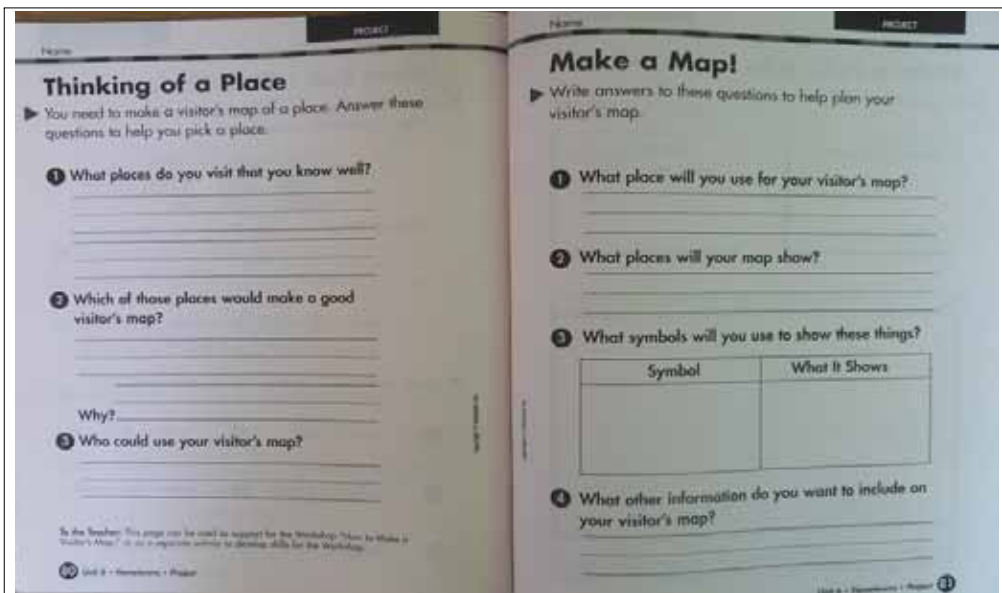


[그림 III-7] 한국 교과서의 정리 학습의 예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정리부

미국 『LITERACY PLACE』의 교사용 지도서 정리(Unit Wrap-Up)부분에는, ‘글쓰기’, ‘주요 언어 사용 전략, 주제, 문식성 면에서 단원의 제재 글과 연관성을 지니는 다른 문학작품 소개하기’, ‘프로젝트’, ‘가정 연계 학습’, ‘단원 평가 방안’ 등이 안내되고 있다. 교과서에는 정리 및 평가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워크북에는 교사용 지도서에 안내된 활동 중 ‘프로젝트’를 위한 학습 공간이 2쪽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주제별 단원 구성에 관한 학습 체계표(The Matrix)에도 명시될 만큼 단원의 중요한 요소⁸⁾로서 주제와 상황 맥락에 맞게 학습자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프로젝트’의 한 예로 1학년 6단원을 살펴보면, 지도 만들기가 [그림 III-8]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I-8] 미국 『LITERACY PLACE』의 ‘프로젝트’ 학습의 예

8) 미국 『LITERACY PLACE』의 주제별 단원 구성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구성해 놓은 학습 체계표(The Matrix)에는, 단원 구성 방식에서 알아보았듯이 단원별로 ‘단원 주제’, ‘멘토’, ‘문식성 공간’, ‘프로젝트’를 명시해 놓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에 제시된 내용은 지도를 만들기 위한 사전 절차에 관한 것이다. 워크북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면서 학습자들은 지도를 만드는 기초 작업을 수행해 가게 된다. 즉, 과제를 수행해가는 절차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안내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 만들기가 사회 교과에서 이루어진다. 반면에 미국 『*LITERACY PLACE*』는 자국어 교과서에 다른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학습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완성해 내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언어생활의 실제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정리부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인 평가 부분은 워크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워크북을 보면 각 주의 마지막 부분에는 복습(Review)과정이 구성되어 있고 그 과정 속에 발음, 어휘, 문법, 텍스트와 관련한 평가가 제시되어 있다. 단원 정리부에 일회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학습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평가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정리부의 단원 구성 요소를 되짚어 보면, 한국 교과서의 경우 평가 학습과 실천학습의 체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으나, 평가 학습은 단편 지식을 묻는 평가로, 실천은 과제 부여로 단순화시켜 놓고 있다. 이는 단원 정리 학습이 한 쪽 분량으로 정해져 지면 활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도 비롯된다. 그러나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정리하고, 실생활과 연계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은 정리부의 주된 기능을 잘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미국 『*LITERACY PLACE*』의 ‘프로젝트’ 학습이나 지속적인 평가 구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교과서 정리부의 문제를 개선하여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가, 안내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에 따라 단원 전개 방식 자체에 융통성을 발휘 할 필요가 있다. 실천학습에 따라 절차 안내가 길어질 수도 있고 평가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과제학습이 아닌 현장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실천학습도 존재 할 것이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면활용에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단원 전개 방식 자체

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4) 학습 보조 자료

가) 한국 교과서의 학습 보조 자료

한국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 보조 자료는 크게 ‘놀이터’, ‘우리말 꾸러미’, ‘붙임 자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듣기·말하기 학습을 위한 CD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각 단원의 끝에 1쪽 분량으로 마련된 ‘놀이터’는 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나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을 길러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의 끝에 실렸지만 단원과는 독립적이며, 창의성의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등을 길러낼 수 있는 자료들이 흥미 있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놀이터’의 구성은 창의력 신장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흥미 있는 학습 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줄 수 있게 된다.

한국의 각 영역별 국어 교과서의 끝 부분에는 ‘우리말 꾸러미’가 설정되어 있다. 해당 교과서 전체에 걸쳐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이나 교과서 전체에 걸쳐 두루 필요한 것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이다. 『듣기·말하기』 교과서에는 ‘우리말 발음 익히기’, ‘우리말 예절’, 『읽기』 교과서에는 ‘주어진 낱말들을 보고 같은 글자 찾기’, ‘바르게 읽기’, ‘낱말 익히기’, ‘문장 읽기’, ‘알맞게 띄어 읽기’, 『쓰기』 교과서에는 ‘글씨 바르게 쓰기’, ‘틀리기 쉬운 우리말 바르게 쓰기’, ‘띄어쓰기 바르게 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단원에 산발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배치한 까닭은 특정 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집중 배치의 형태가 교과서 개발이나 실제 운영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교사용 지도서에 밝히고 있다. 집중적인 배치로 인해 단원 학습 중 생략되기 쉬운 문제는, 단원 학습 중에 관련된 ‘우리말 꾸러미’의 쪽수를 하단에 안내함으로써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보조 자료는 우리말을 학습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요소들을 다시 정리하고 되짚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원 학습 내용 중 ‘우리말 꾸러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도 단원 학습에 안내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⁹⁾, 단원 학습 활동과 ‘우리말 꾸러미’의 내용이 중복¹⁰⁾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 제일 마지막에 수록 된 붙임 자료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에서 가시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의 학습 활동을 기록해 두는 학습장이나 단원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낱말 카드나 붙임 딱지 등)를 첨부하여 교과서 활용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교사에게는 자료 준비의 시간을 덜어주게 되며, 학생에게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나) 미국 『*LITERACY PLACE*』의 학습 보조 자료

미국 『*LITERACY PLACE*』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를 모아 놓은 ‘어휘 해설’이 마련되어 있다. 어휘를 나타내는 그림, 어휘에 대한 설명, 어휘를 사용한 문장을 제시하여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어휘에 대한 복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한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학습 보조 자료를 비교해 보면, 한국 교과서의 학습 보조 자료가 더욱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놀이터’나 ‘붙임 자료’와 같은 학습 보조 자료는 학생들의 흥미와 교과서에 대한 친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재미있는 교과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상으로 3절에서 살펴본 단원 구성 체제를 비교 정리하면, 한국 교과서의 도입부에서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었으며, 전개부에서는 이해 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개 속에서 과정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원 정리 학습과 실천 학습을 정리부에 제시하여 단원 학습 정리 및 평가, 실생활과의 연계를 모두 고

9) 『읽기』 교과서 62~65쪽은 ‘반복되는 말의 재미를 살려 시를 읽어 봅시다.’라는 차시 목표에 따라 반복되는 말을 읽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우리말 꾸러미에도 흉내 내는 말을 알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으나 관련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0) 1학년 1학기 『읽기』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에 제시된 내용들은 모두 단원 학습 내용과 중복되고 있다.

려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 『*LITERACY PLACE*』의 경우, 도입부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서 전반에 걸쳐 크고 화려한 삽화로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텍스트로 문학작품을 충분히 감상·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주교과서의 텍스트와 연계한 워크북에서 문법적 학습 및 언어 기능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단원 구성 체제는 교과서의 구성 요소 및 교과서를 조직화·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를 구성하는 가장 큰 단위인 단원의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에서 부각되는 특징들을 반추하여 단원 전개 양상에 대한 새로운 구성안을 마련해보는 작업이 뒤이어져야 할 것이다.

4.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입문기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화 시대에 문명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초 문식성 함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초 문식성 함양은 주로 초등학교 입문기인 1학년 때 이루어지는 데, 기초 문식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어 학습은 물론 타 교과 학습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며,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기초문식성에서 뒤쳐지는 경우, 학습 부진 상태가 계속해서 심화되게 된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쓰기, 문법 영역에 기초 문식성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영역에 담긴 기초 문식성 교육의 내용은 『읽기』와 『쓰기』 교과서에서 구현되고 있으므로 1학년 『읽기』와 『쓰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읽기자료를 바탕으로 교과서가 구성되고 대역제로 공급되는 미국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이 기록하고 수행하는 개별적인 학습 공간이 워크북에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미국 『*LITERACY PLACE*』의 전개 양상은 주 교과서가 아닌 워크북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충분한 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초문식성의 비중과 관련해서는, 먼저 초등학교 바로 전 단계인 유치원에서 기초문식성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이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1학년 입문기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 수준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알맞은 학습 분량이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 교과서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특정 교과서가 없는 한국 유치원의 경우,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내용은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 III-9>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2007년 개정유치원 교육과정 내용

내용	하위 내용	수준별 내용	
		I	II
읽기	읽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 여러 가지 맥락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측해 본다.	·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 읽어본다.
	책에 관심 가지기	·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 책의 그림을 단서로 추측하여 읽는다.
쓰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굵적거리기를 즐긴다. · 자기의 이름을 써본다.
		·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 사용하기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에 관심을 가진다.

<표 III-9>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치원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에서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거나 읽어 보는 수준에서 읽기 학습이 전개되며, 자기 이름 쓰기 외에는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에서의 글쓰기 학습을 고려하여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읽기』 6단원 중 3단원 18차시에 걸쳐 기초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지며, 실질적인 문자 해독 시간은 2단원까지인 12차시에 불과하다. 『쓰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바르게 글자를 쓰기 위한 학습 분량은 3단원 12차시이며,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림일기 쓰기 관련 학습 내용이 4단원 4차시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이로써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시간은 읽기 18차시, 쓰기 16차시로 모두 34차시로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다. 이 중 글을 읽고 쓰는 문자 해독을 위한 시간은 읽기 12차시, 쓰기 12차시로 모두 24차시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주당 7차시의 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1학년 교육과정을 감안 할 때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문자 해독을 위한 학습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2) 미국 『LITERACY PLACE』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LITERACY PLACE』를 인정 도서의 하나로 선정한 미국의 여러 주중 하나이다. ‘읽기’, ‘쓰기’, ‘말과 글의 관습’으로 영역이 나누어진 캘리포니아 주의 유치원 교육과정¹¹⁾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을 살펴,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어느 정도의 기초 문식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1) 여기서 소개된 캘리포니아 영어 교육과정은 199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문부성에서 채택하고 발표한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영어-언어 과목 내용 기준(English-Language Arts Content Standards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이다.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 2004, pp. 153-161)

<표 III-10> 기초 문식성 교육과 관련한 캘리포니아 주의 유치원 교육과정 내용

영역	내용		
	기본 범주	하위 범주	세부 내용
읽기	단어 분석, 유창성, 체계적인 어휘 발달	인쇄물에 대한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의 앞뒤 표지와 표제 페이지를 확인한다. · 인쇄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단어를 따라 간다. · 인쇄물에는 정보가 담겨 있음을 이해한다. · 인쇄된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한다. · 글자와 단어를 구별한다. ·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인식하고 그 이름을 안다.
		음소에 대한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세 개 음소들의 수, 유사/차이, 순서를 따라가며 재현한다. · 두세 개의 소리로 이루어진 단순한 음절과 단어 내에서 한 개의 소리가 추가, 대체, 생략, 전이, 반복될 때마다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가며 재현한다. · 모음-자음을 섞어 입으로 소리를 내고 그것을 단어나 철자로 만든다. · 운율에 맞는 단어를 구연을 통해 알아내고 만들어 낸다. · 입으로 낸 1음절 단어를 구분하고 그것을 첫소리나 끝소리로 나눈다. · 문장 속의 각 단어와 단어 속의 각 음절을 귀로 들으며 따라간다. · 음절 속의 소리 개수와 단어 속의 음절 개수를 센다.
		해독과 단어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자음과 짧은 모음 소리를 그에 대응하는 글자와 연결한다. · 단순 1음절 단어와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읽는다. · 단어의 글자가 바뀔에 따라 소리도 변함을 이해한다.
		어휘와 개념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범주(색깔, 모양, 음식 등)내에서 공통된 단어를 찾고 분류한다.
쓰기	쓰기 전략	조직과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 이야기, 사람, 사물 및 사건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 글자 및 발음대로 쓴 단어를 이용한다. · 자음-모음-자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쓴다.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옮겨가며 글씨를 쓴다.
		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의 형태와 간격에 유의하여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를 각각 쓸 수 있다.
말과 글의 관습	말과 글의 구조	문장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할 때 완전하고 일관된 문장들을 인식하고 사용한다.
	말과 글의 관습	철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 전 지식, 알파벳의 소리, 글자 이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서 철자를 읽을 수 있다.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학습의 범위를 보면, 알파벳 읽고 쓰기 및 단순 1음절 단어와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읽는 과정까지 학습하게 된다. 문자를 익히기 위한 기초 과정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 『*LITERACY PLACE*』의 워크북을 보면, 1학년 첫 단계에서 알파벳 대·소문자를 한 번씩 써보는 활동은 있지만 알파벳을 읽고 쓰기 위한 별도의 학습 공간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유치원에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다. 1학년 워크북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여, 읽기, 쓰기, 문법, 발음, 어휘, 관용적 표현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학습은 1학년 6개의 단원 모두에서 1년 내내 이루어진다. 한 단원씩 분권된 워크북의 목차를 보면 차시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학습 분량이 나누어져 있으며, 한 단원은 주 교과서의 단원전개방식에서 보았듯이 6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는 6주째를 빼고는 1주~5주까지 매주마다 발음, 어휘, 문법 관련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속에서, 학습자들은 글자를 읽고 쓰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으로 살펴 본 한국과 미국 『*LITERACY PLACE*』의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유치원 교육과정에 드러난 언어 교육 내용과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LITERACY PLACE*』가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학습 기회가 훨씬 많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적절한 시간을 논할 때, 한글과 영어의 문자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의 기초 문식성 교육의 비중이 매우 적은 데는,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입문기 학습자들의 기초 문식성 수준이 높아진 까닭도 있다. 이러한 기초 문식성의 수준은 지역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이두석(2001, pp. 38-39)의 연구에서는 1학년 입학 초기 문식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결과 20% 정도의 학생들이 문자해독도 안 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전에 가정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습자 및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수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문자 학습을 시작하지 않는 유치원 교육

과정과의 연계를 고려 할 때, 한국 교과서에 드러난 글자 교육을 위한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즉, 문자 해득을 위한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가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 문식성 교육이 이후의 학습 및 타 교과 학습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초 문식성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한 흥미 있는 활동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하며, 단지 가정에서 사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기초 문식성 교육이 필요한 학습자들을 위한 충분한 학습의 기회가 필요하다.

나.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과서 전개 양상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은 다른 학습 내용과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 본 두 나라의 단원 전개 방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단원을 넘어, 교과서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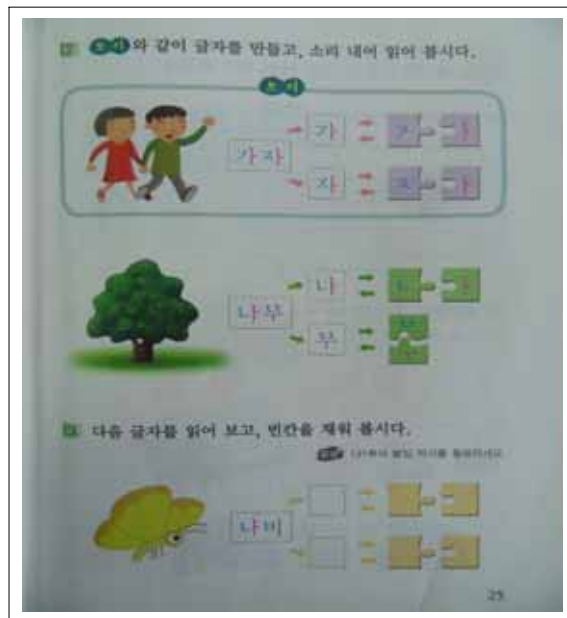
1) 한국 교과서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는 입문기 학습자들의 흥미와 체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지도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 단원 내에서도 단어식, 음절식으로, 또는 자모식, 음절식, 문장식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먼저 『읽기』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첫 차시는 그림을 보고 선생님을 따라 낱말을 읽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족 관련 낱말을 읽어보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차시에서는 ‘바른 자세로 글을 읽어봅시다.’라는 차시목표에 따라 짧은 시 형태의 읽기 자료가 제시 되어 있다. 4차시는 소리 내어 읽기로 학습자들이 좋아하는 동물 삽화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단어식으로 낱말을 학습 한 후, 5차시에서는 동음절 낱말 학습이 이루어진다. 퍼즐 및 노래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단원의 마지막인 6차시에서는 문장 단위의 글을 바탕으로 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2단원은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단원 학습 목

표에 따라 자음과 모음이 만나 음절을 이루는 글자의 짜임과 관련된 내용이 6차시에 걸쳐 이루어진다. [그림 III-9]와 같이 받침이 없는 글자를 퍼즐 모양, 붙임 딱지 등을 이용해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보는 활동을 먼저 한 후,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흥미 있는 자료를 먼저 제시하여 학습 부담감을 줄여주고 있으나,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나누어 볼 때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의문이다. 자음자와 모음자를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왼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있는 것’의 의미 밖에 없다.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 보는 다음 활동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학습하기 전에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이 적힌 기본 음절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어 학습의 계열에 혼란을 주고 있다. 낱말식에서 문장식, 글자의 짜임과 관련한 음소식 학습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음절에 대한 충분한 학습 없이 생소한 낱자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음절표는 문자의 자모 결합의 원리를 알게 하여 문자를 익히도록 하는 발음중심 교수 방법의 대표적인 교수 자료 중의 하나이나 기초 문식성 초입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많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 오는 듯한 느낌을 주기 쉽다.



[그림 III-9] 한국 교과서의 ‘글자의 짜임 알기’ 학습 내용 예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하여 알아보는 학습은 한 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단모음자와 14개의 단자음자를 한 차시에 모두 익히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며,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는 무리한 학습 분량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음자를 익히는 방식으로 제시된 자음자 찾기 놀이는, 흥미 있는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음을 익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음 차시에서는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을 바탕으로 한 음절식 학습이 이어진다. 삶과 관련된 짧은 글을 제시하여 실제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적어보는 단계까지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3단원은 문장 부호에 알맞게 글을 띄어 읽기 위한 학습 활동으로, 편지, 시, 이야기 등의 텍스트 속에서 문장부호를 이해하고 알맞게 글을 띄어 읽는 기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텍스트를 통한 학습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반영도도 높이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 본 『읽기』 교과서의 내용 중 문자 해득과 관련한 1, 2단원의 전개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1> 문자 해득을 위한 『읽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단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기초 문식성 지도 방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배우는 기쁨	낱말을 바르게 읽을 수 있다.	1	· 그림을 보고 낱말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3	· 그림을 보고, 바른 자세로 글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4	· 낱말을 소리 내어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5	· 같은 글자가 들어 있는 낱말 찾기	음절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 같은 글자가 들어 있는 노랫말 읽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6	· 시 ‘비오는 날’ 재미있게 읽기 / 소리 내어 읽기 / 시에 나오는 낱말 읽기	문장식,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표 III-11> 계속

단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기초 문식성 지도 방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2. 이렇게 생각해요	글자의 짜임을 알고,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1	· 받침이 없는 글자의 짜임 알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한글의 자모 이용하여 글자 (낱말) 만들어 소리 내어 읽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	·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이름 알기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4~5	· 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 알기 · 받침이 있는 낱말 만들어 소리 내어 읽기	음절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6	· 글자의 짜임 생각하며 글 읽기 · 글에 나오는 낱말을 음절로 나누어 글자의 짜임 알아보기	문장식 음절식, 자모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표 III-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읽기』 교과서는 단어식 학습법이 시작과 중심이 되어 음절식, 자모식, 문장식 학습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발음 중심 지도 방법과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을 절충한 균형적 지도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문학 작품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낱말과 노랫말을 사용하고 놀이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음으로 『쓰기』 1학년 1학기 교과서를 살펴보면, 글쓰기 태도와 관련하여 글씨를 쓰는 바른 자세와,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이 두 차시에 걸쳐 제시되어 글을 처음 배우는 입문기 단계에 선행되어야 할 태도 요소를 충분히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태도 학습 후에는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단어식 학습법에 의해 학교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보고 낱말 전체를 쓰도록 하고 있다. 다음 차시에서는 보기 없이 그림에 맞는 낱말을 써 보는 활동 및 각 음절을 합쳐 낱말을 써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써보는 활동이 각 각 한 차시씩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읽기』에서 한 차시 동안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이를 적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에 부담을 주었던 부분을 떠올린다면, 『쓰기』와 『읽기』를 통합하여 자음자와 모음자를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또한 『읽기』교과서에서 살펴보았던 자음자와 모음자가 합쳐져 낱자와 낱말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쓰기』교과서 우리말 꾸러미에도 6쪽에 걸쳐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이후 그림에 알맞은 낱말 쓰기, 틀린 낱말 바르게 고치기, 낱말 받아쓰기, 문장 받아쓰기 학습이 3단원까지 이루어진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낱말은 학교, 교실, 숲, 문구점, 채소가게, 과일가게 등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낱말을 문자로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활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몇 시간은 낱말을 읽기만 하고 몇 시간은 낱말을 쓰기만 하며 분리된 학습을 전개하기 보다는, 낱말을 읽고 쓰는 활동을 총체적으로 전개 할 때 학습의 효과는 더욱 높아진다.

4단원은 기초 문식성 교육 내용 중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글로 나타내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일기로 쓸 수 있다.’는 단원 학습 목표에 따라 ‘그림일기의 형식 알기’, ‘그림일기를 잘 쓰는 방법 알기’의 이해학습 2차시, ‘내가 겪은 일을 그림일기로 써보기’의 적용학습 2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써보는 단원에서, 글쓰기의 형식을 강조한 이해학습이 두 차시에 걸쳐 이루어지며, 2~3문장으로 구성된 일기를 써보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기 쓰기는 생활 경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글쓰기이다. 그러나 문장 쓰기를 시작하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형식을 갖춘 글쓰기 과제를 부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상황부터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문장의 수를 확대해 가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 본 『쓰기』 교과서의 내용 중 문자 해득과 관련한 1, 2, 3단원의 전개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2> 문자 해득을 위한 『쓰기』 교과서의 전개 양상

단원	단원 학습 목표	차시 학습 내용		기초 문식성 지도 방법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배우는 기쁨	바른 자세로 앉아 글씨를 쓸 수 있다.	1	· 글씨를 쓸 때 바르게 앉아 보기 · 바르게 앉아 자기 이름, 친구 이름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	· 연필 바르게 잡기 ·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바른 자세로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3~4	· 바르게 앉아 낱말 쓰기	단어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2. 이렇게 생각해요	순서에 맞게 글씨를 바르게 쓸 수 있다.	1	· 자음자 바르게 쓰기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낱말에 알맞은 글자 찾기 · 모음자 바르게 쓰기	음절식 자모식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4	·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 쓰기 · 낱말에서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 마음을 나누며	글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1	· 글자를 바르게 써야 하는 까닭 알기 · 낱말에서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2	· 낱말 받아쓰기	단어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3~4	· 글자를 쓸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경우 알아보기 · 문장에서 틀린 낱말 바르게 고쳐 쓰기	단어식 문장식 음절식	의미 중심 지도 방법 발음 중심 지도 방법

<표 III-1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쓰기』 교과서 역시 단어식 학습법이 시작과 중심이 되어 음절식, 자모식, 문장식 학습법이 다양하게 적용하는 균형적 지도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낱말 쓰기’, ‘틀린 글자 고쳐 쓰기’ 등의 내용이 계속되어 자칫하며 학습이 지루해지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쓰기』 2, 3단원에서는 단원 내에 인물을 설정하고 있다. 2단원에서는 새롭이, 3단원에서는 다람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단원 내내 새롭이와 다람이의 상황 맥락 안에서 문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설정은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학습의 실제성을 높이게 된다.

이상으로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한국 교과서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입문기 기초 문식성 단계임을 고려하여 글쓰기의 바른 자세와 관련하여 태도부분을 먼저 학습하도록 교과서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둘째,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낱말과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에 친밀감을 높이고 있으며 균형적 지도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식 지도법이 중심이 되고 자모식, 음절식 등의 발음 중심 지도법은 몇 차시에 묶여 단 시간에 지나가다 보니 쉬운 글자에서 어려운 글자, 즉 받침이 없는 글자-받침이 있는 글자-이중 자·모음에 대한 단계적인 학습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중 자·모음은 기초 문식성 관련 단원 이후에 글을 읽거나 쓸 때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나, 이에 대한 학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를 살펴보면, 학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음자 모음자를 학습할 때 이중 자·모음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학습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어디에서도 안내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적 지도법에서 진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흥미 있는 학습 상황과 문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내용이 균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삶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과 문학 작품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음자와 모음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음자와 모음자를 익히고 결합하여 알맞은 낱말을 쓰기에는 교과서에 나타난 반복의 과정이 너무 적다. 문자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변별하고 이를 발음과 연관시키고 글자로 다시 적어나가기에는 새로운 단어가 너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문자가 채 습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단어를 익혀야 하므로 학습자들의 정확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문자 학습을 위한 충분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쓰기 학습장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기초 문식성 교육이 반영된 『읽기』와 『쓰기』 교과서의 분책으로 인하여 문자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2) 미국 『LITERACY PLACE』에 드러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

워크북에서 이루어지는 기초 문식성 교육은 주교과서 텍스트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한글과 영어의 글자 원리나 문법 체계가 비록 다르지만 한글의 초기 문자 지도 방법과 관련시킨다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하향식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둔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을 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향식 문자 지도 방법은 의미 파악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어 정확한 발음을 지도하기 어렵고, 제한된 단어, 문장만 지도하게 되므로 학습량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워크북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발음, 어휘, 문법 중심의 학습을 워크북에 구성함으로써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을 절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LITERACY PLACE』의 기초 문식성은 주 교과서와 워크북이 상호 보완하며 의미 중심 지도 방법과 발음 중심 지도 방법을 절충한 균형적 지도 방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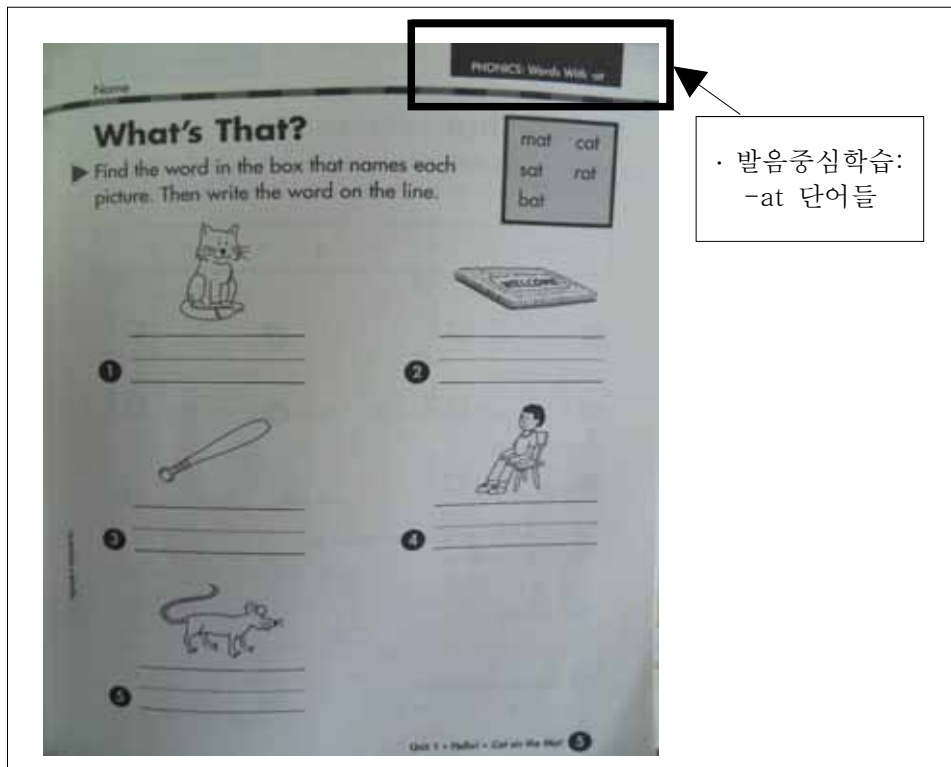
미국 『LITERACY PLACE』의 경우 실제적인 기초 문식성 교육은 워크북을 통해서 수행하게 된다. 기초 문식성 교육이 드러난 1단원 워크북의 주요 학습 내용과 주별 전개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3>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미국 『LITERACY PLACE』 워크북의 1학년 1단원 전개 양상

UNIT 1. Hello!				
1주(5차시 기준)	2주	3주	4주	5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중심학습: -at 단어들 · 어휘 : 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하기 · 문법 : 문장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쓰기 · 발음중심학습: -an단어들 · 알파벳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중심학습: -ot 단어들 · 어휘 : 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하기 · 문법 : 마침표 · 발음중심학습: -op단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중심학습: 자음/m/m · 어휘 : 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하기 · 문법 : 대명사 'I'는 대문자로 쓰기 · 발음중심학습: 모음/a/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중심학습: 자음/l/l · 어휘 : 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하기 · 문법 : 간단한 문장 이해하기 · 발음중심학습: 자음/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음중심학습: 자음/s/s · 어휘 : 주 텍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활용하기 · 문법 : 어순에 맞게 쓰기 · 발음중심학습: 모음/o/o

학습전개 과정을 보면, 자음이나 모음 별로 구별하거나 알파벳 순서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발음과 어휘의 순으로 지도하고 있다.

발음학습의 경우에는, 같은 음소를 지닌 단어의 발음 학습을 통해 음과 철자와의 관계를 익히고 낱말 샘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그림 [그림 III-10]과 같이 중심 학습 활동을 상단에 명시하되, 읽고, 쓰는 활동을 동시에 제공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음소를 지닌 단어끼리 나누어 지도하게 되면, 많은 어군이 생겨나게 된다. 이에 따른 보완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해결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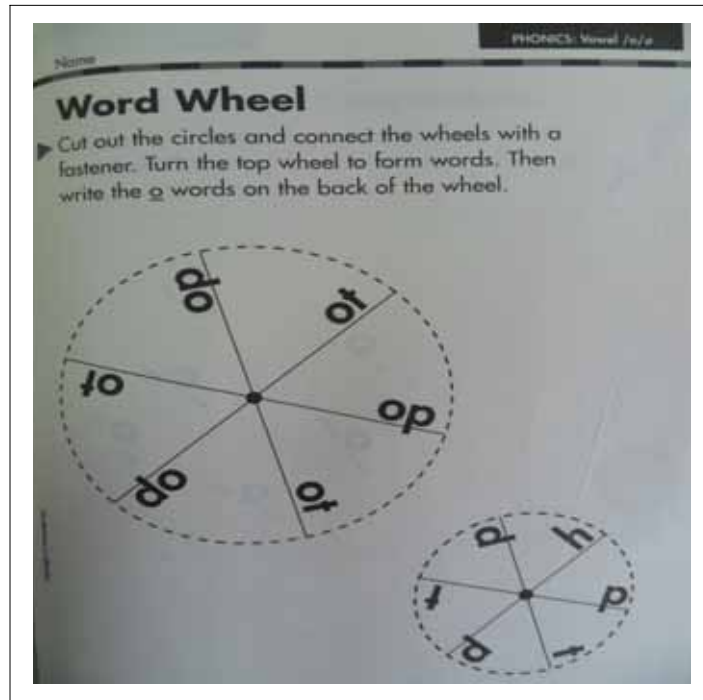


· 발음중심학습:
-at 단어들

[그림 III-10] 미국 『LITERACY PLACE』 워크북에 드러난 발음 학습의 예

또한 발음 중심학습에서도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림 [그림 III-11]에서 볼 수 있는 단어 회전판의 경우, 두 개의 회전판을 하나의 중심에 두고, 작은 회전판을 돌리다보면 hop,

hot, pop, pot 등의 다양한 단어를 생성하게 된다. 모음/o/를 발음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단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 III-11] 미국 『LITERACY PLACE』 워크북에 드러난 다양한 학습 방법의 예

이상으로 기초 문식성 지도를 위한 미국 『LITERACY PLACE』 워크북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첫째, 주교과서와 보조 교과서인 워크북이 상호 보완하며 균형적 문자 지도 방법을 취하고 있다.

둘째, 발음, 읽기, 쓰기, 문법 학습이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부분별로 중심 활동이 명시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언어 기능과 학습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고 있다.

셋째, 기초 문식성을 위한 학습이 매 단원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충분한 학습 기회의 제공은 지식 및 언어 기능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고등 문식성을 기르기 위한 뒷받침 역할을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I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살펴보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교과서 분석 준거 마련을 위한 이론적 점검을 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방법을 설정하였다.

II 장은 연구 배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먼저 1절에서 교과서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교과서의 기능에서는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국어의 교과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국어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은 체제 중심 구성 방식, 목표 중심 구성 방식, 문종(文種) 중심 구성 방식, 주제 중심 구성 방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3절에서는 기초 문식성 지도와 관련하여 문식성의 기초 기능 및 한글의 초기 문자지도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초기 문자 지도방법에는 발음 중심 지도 방법과 의미 중심 지도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절충식 지도법의 하나인 균형적 지도법이 대두되고 있다.

III 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수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교과서 편찬·발행 및 공급체제를 살펴보았는데, 한국은 국정제를 취하고 있으며 교과서는 무상으로 급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인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의 공급에서는 대여제를 취하고 있다. 2절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형태를 비교하였는데, 한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로 교과서를 분책하고 있으며, 미국은 언어 기능 및 영역이 통합된 주교과서를 바탕으로 보조교과서인 워크북을 함께 발행하고 있었다. 3절에서는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단원 구성 체제에서는 단원의 구성 방식, 단원 전개 방식, 단원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한국은 언어 사용 목적에 따라 단원을 구성하여 목표 중심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해학습에서 적용학습으로 단원 전개 과정이 체계화 되어 있으며, 학습을 돕는 여러 학습 보조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미국 교과서는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텍스트들이 교과서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프로젝트, 멘토 학습 등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 실제적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4절에서는 1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기초 문식성 교육의 전개 양상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두 나라 모두 균형적 지도법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 교과서는 기초 문식성을 위한 학습 공간이 한 달 정도의 분량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 교과서는 보조 교과서인 워크북을 통해 1년에 걸쳐 발음, 어휘, 문법 등과 관련한 기초 문식성 교육이 점진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자국어 교과서에 대한 이상의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의 국어 교과서 개선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과서 편찬·발행 제도와 관련하여 검인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담긴 교육적 가치, 교과서 외적 체제 및 단원 구성 체제, 제재 선정 및 수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과서를 둘러싼 큰 틀이 바뀌어야 교과서 안의 모습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층을 확대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며, 국어 교과서의 요건을 갖춘 교과서가 양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어 교과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나누어 질 수 없는 언어 사용을 분책하여 가르침으로써 교과서에서 학습한 언어와 삶의 언어 사용의 괴리 문제, 반복된 학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와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통합교과서가 구성 될 때 총체적인 언어 교육이 가능하며, 언어기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보조 교과서와 같은 워크북 개발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빠르고 다양하게 정보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교과서와 연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홈페이지에는 작가 소개, 관련된 다른 텍스트 소개를 비롯하여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평가 자료의 예시 등 교사를 지원하는 요소들도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 중심 단원 구성을 통해 전개 되는 세부적인 기능과 구체적인 지식 학습은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국어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목표 중심 접근

법과 주제 중심 접근법을 상호 보완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텍스트를 채택 한 후, 텍스트를 통하여 언어 기능 목표를 학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주제 중심 단위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단위 안에서 언어 기능 학습을 위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학습자의 삶과 가까운 주제를 바탕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도 끌어 올릴 수 있게 된다.

넷째, 다양한 텍스트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텍스트란, 범교과적, 범국가적인 텍스트뿐만 아니라, 학생의 작품, 다양한 가치가 내재 된 작품도 포함한다. 다양한 텍스트를 되도록 전문으로 실음으로써 학습자의 문학적 수용 및 창작 능력이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며, 상황 맥락을 반영한 실제적인 학습이 촉진 될 것이다.

다섯째, 기초 문식성 교육을 위한 충분한 학습 기회가 필요하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문자 해독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다. 모든 학습자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기초 문식성 교육이 필요하며, 선수 학습이 이루어진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활동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텍스트와 놀이 학습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상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이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어를 다루는 자국어 교과서의 우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 교과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과서의 질적 개선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러 나라,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비교 연구,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제 수업 상황으로의 교과서 적용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Ⅲ.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Ⅲ.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국어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과서 『듣기·말하기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읽기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등학교 교과서 『쓰기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Scholastic. (2000). 『LITERACY PLACE』. Scholastic.

<기술·연구 보고서>

- 김재복 외. (2006).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6-1).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 김재춘 외. (2005).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노명완 외. (2004). 교과용 도서 내적 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이인제 외. (2002).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용 도서 개발 연구 : 종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단행본>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1992). 교육학 대사전. 교육서관.
- 노명완, 이차숙. (2006). 문식성 연구. 박이정.
- 우리말교육연구소 엮음. (2004). 외국의 국어 교육과정 2. 나라말.
- 최미숙 외. (2009).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현섭 외. (2008).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 교수학습 연구소(편). (2006). 독서 교육 사전. 교학사

<논문 및 학술지>

- 김수현. (2003).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체제의 비교 연구** :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창원. (2003). 문학 교과서 개발에 대한 비판적 점검 :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예로 들어. **문학교육학**, 11.
- 김창원. (2005). **미래 지향형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과 원리**. 제24회 경인초등국어교육학과 하계연구발표.
- 노명완. (2002).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 7.
- 박영민. (2004).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과 진술의 방안**. 한국교원대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학술세미나.
- 박인기. (2006).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상과 초등 국어과 교과서의 성격**.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박정진. (2005). 학교급별 국어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25.
- 신은주. (2007).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문학 단원 비교 연구** :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신현재. (2006). **제7차 초등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과 대안**.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유성호. (2005). 국어과교육과정에서의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청람어문교육**, 31.
- 이두석. (2001).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문식성 지도 실태 및 교재 구성 방안 연구**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이수진. (2006). 초등 수준별 국어 교과서의 개선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72.
- 이용숙. (2005). 제7차 중학교 국어과 교과서와 미국 교과서 내용 구성 체계 비교 분석. **교육과정 연구**, 23(2).
- 이주섭 외. (2006). 외국 초등국어과 교과서의 특징과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

육연구, 6(2).

- 이주섭. (2007). 초등 국어 교과서의 분책 방식과 단원 구성 방식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33.
- 이주섭. (200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분석 : 『말하기·듣기』 교과서의 원리학습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2).
- 정영선. (2005). **한·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 : 제7차 교육과정의 언어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정인석. (2001).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정혜승. (2004). 국어 교과서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1.
- 정혜승. (2005). 미국의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 교과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4.
- 정혜승. (2006). 좋은 국어 교과서의 요건과 단원 구성의 방향. **어문연구**, 34.
- 최미혜. (2007). **미국 교과서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비교 연구** : 4학년 읽기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 최영환. (2003). 효율적인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6.
- 한명숙. (2006). **초등 국어과 교과서 개발과 단원 구성체제**.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 한숙희. (2006). **입문기 기초 문식성 지도 방안**. 석사 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황정현. (2006). **초등 국어과 교과서 구성의 방향과 원리** :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연구소 제3회 전국학술대회.

<웹사이트>

미국 Scholastic 출판사 : <http://www.scholastic.com>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http://www.ktrf.re.kr>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tive Language Textbooks us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Yang, Eun Su

Major in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Lee, Joo Seop

This study, focusing on grade 1 textbooks, comparatively analyzed the Korean textbooks and English textbooks used in Korea and the U.S. to gain the implications on the revision of Korean textbooks. Since the Korean textbooks are in the gradual revision process in step with the 2007 Revised Korean Curriculum, the study selected only one single Korean textbook that is used during the first semester of grade 1, and selected an English textbook 『LITERACY PLACE』 published by Scholastic in the U.S. for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textbook.

Looking into the detail discussions in this study, chapter II contains the theoretical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intended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functions of a textbook in verse 1. In verse 2, the study inquired into the chapter structure of the Korean textbook. As for the basic literacy, the basic function of literacy and the characteristics in the teaching method in early Korean literacy education were discussed.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extbooks in Korea and the U.S. is explained in chapter III. First of all, the study looked into the textbook publications and publishers that have influence on developing and revising textbooks, Korea adopted government authorization system and the textbooks were provided free of charge. On the other hand, the U.S. system is based on the private authorization system and the textbooks were rented to the students. In verse 2, the structures of textbooks were compared and Korea sectioned the textbook to 『Listening and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nd in the U.S., based on the main textbook containing the functions and field of language, the workbooks for supplementary use are established together. In chapter 3, the chapter structures of each textbook are compared and the chapter structures are divided into the chapter structure, the chapter development method and the elements in chapters. The Korean textbook has the objective-oriented structure by structuring the chapters in accordance with the study objectives while the U.S. textbook has the topic-based structure. The Korean textbook systemized the entire development process through comprehension study and applications, and it is supported by many well-designed supplementary devices. The main body of U.S. textbook consists of various texts focusing on literary works, and focuses on teaching practical languages through the project and mentor learning. In verse 4,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features of basic literacy education appeared on the grade 1 textbook was carried out. Although both countries adopted the balanced teaching method, the Korean textbook allocates the volume of basic literacy study for only one month while the U.S. textbook is accompanied by the supplementary work book that is designed for 1 year length basic literacy education.

From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Korean and the U.S. textbooks, the study could derive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textbooks. First, as for the public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transfer to the qualification and permission system. Second,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on the unification of Korean textbook. Third, a complement to the existing objective-oriented chapter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Fourth, there should be provided an opportunity to accommodate various texts sufficiently. Fifth, it is necessary to have enough chance and time to study for basic literacy education.

Since Korea and the U.S. are using different language based on different cultures, it is hard to say which is better. However, based on the strengths in Korean textbooks, there should be an effort to complement the implications found in the U.S. textbook so that there should be a continuous qualitative improvement.

Keywords : The U.S. Textbook, Chapter Structure, Basic Literacy